

[통권 제64호] **It's Daejeon** 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 바로 대전이다 라는 의미이다. 활기찬 도시 · 쾌적한 생활 · 정다운 시민을 지향하는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대전

- 삶이 재미있고 풍요로운 도시 - Interesting
- 전통과 다양한 문화의 도시 - Tradition & Culture
- 과학의 도시, 미래의 도시 - Science & Technology

〈이츠대전〉 인터넷으로 보기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www.metro.daejeon.kr](http://www.metro.daejeon.kr) 대전소개 > 이츠대전 클릭!    • 대전광역시 인터넷방송 <http://tv.daejeon.go.kr>



| 오월드, 한밭수목원, 유림공원 무더위 씻는 가족나들이 명소입니다 |

# It's Daejeon

함께 가꾸는 대전 · 함께 누리는 행복

## 2009.07



## 첨단과학도시대전이 우주시대를 열어갑니다

» 기 간 : 2009. 10. 12(월) ~ 16(금)

※ UN · IAF 워크숍(10.9 ~ 10), IAA 아카데미 데이(10. 11)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일원

» 내 용

- 총 회 : 48개국 177회원(2007. 10 현재) ※ IAA(77개국 1,200여명)
- 기술회의 : 5개 분야, 130개 세션, 1,200편 논문발표
- 우주전시 : 국가우주기관(NASA, ESA 등), 연구소, 기업 등
- 공식행사 : 개막식, 환영리셉션, 문화이벤트, 스페이스 페스티벌 개최

» 참가규모 : 세계 60여 개국 3,000여명의 전문가 참여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항공우주축제!

# 2009년 국제우주대회(IAC)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 It's Daejeon

발행일자 / 2009년 7월 1일 [통권 64호]

발행처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발행인 / 대전광역시장 편집인 / 공보관 윤태희

홍보기획담당 / 사무관 오규환

편집장 / 최예영 편집위원 / 김순조, 허용주

사진 편집위원 / 윤기중

편집디자인 / 삼원DPS

조혜선, 오혜미, 김우정

제작·인쇄 / (주)유신당

• 매월 1일 발행되는 <이츠대전>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애독자엽서나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전화문의 : 042)600-2033, 3037~8

광고문의 : 042)600-3037

## COVER STORY



중부권 최고 종합테마파크 오월드, 전국 최대 한밭수목원, 명품 숲 유림공원. 여름의 쉼을 위한 더위를 씻을 수 있는 가족나들이 명소입니다.

표지사진\_ 윤기중



07



16



20



10

# Contents

2009 + 7월호

... 대전시 60년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 ...

## 포커스

- 04 특집 **민선4기 4년차 대전시정 10대과제**
- 12 가족나들이\_ 대전지역 박물관·미술관 총정보
- 20 도심명소\_ 대전 명품 한밭수목원, 오월드, 유림공원
- 22 시민인터뷰\_ 녹색도시 대전 가꾸는 환경일꾼들
- 34 대전시 의회\_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 의정

## 경제와 생활

- 27 다문화가정\_ 원하는 모국어 전화안내 '1577-1366'
- 28 대중교통\_ 시내버스노선 개편 6개월 '정시성, 이용만족도' 업그레이드
- 30 자전거 도시\_ 광역시 첫 자전거 보험 운영
- 32 인재양성\_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닷 올렸다
- 33 교육정보\_ 한국폴리텍IV대학 7월 취업교육정보
- 36 G9 프로젝트\_ 옥천 포도축제, 금산 금강민속축제
- 38 원도심이아기\_ 가톨릭문화회관, 그 설렘과 추억
- 45 친절시민\_ 이 달의 친절 버스기사상 이세창·송용규 씨
- 46 알아두세요\_ 대전시청 남문 잔디광장 명칭 공모 외
- 47 지역마당\_ 시민이 뽑은 이 달의 10대 시정 외

## 문화와 레저

- 37 문화화제\_ 한 여름밤 야외공연 대향연
- 39 대전맛집\_ 서구 월평동 '동원손칼국수' / 이성희
- 40 방학기획\_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 42 사람과 화제\_ 태권도 명문 전국 명성 오정중 외
- 48 연재만화\_ 강꽃잎 일기 '에어컨 오신 날' / 유난정
- 49 마을유래\_ 서구 장안동 / 김동근
- 55 문화향기\_ 공연, 전시, 책, 문화캘린더

## 참여마당

- 26 찰칵! 내 솜씨\_ 디카 사진관
- 50 독자광장\_ 수필, 제언, 의견
- 52 명예기자 마당\_ 과학기술과 인간 외
- 58 애독자 의견\_ <이츠대전>을 읽고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저작권 허락을 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외부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전광역시의 공식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선4기 10대 과제



녹색성장 선도  
민선4기 4년차

# 10대 과제





#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 제60회 국제우주대회 성공적 개최
- 경제위기 극복, 지역경제 안정
-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용지 공급
- 녹색성장 선도 푸른 숲 전원도시 조성
-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수요자 맞춤형 복지 무지개프로젝트 확대
-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 완료
- 대전권 광역교통 구축사업
- 도시균형개발사업 본격 시행



532억원 생산파급  
1,700여명 고용창출

## 10월 국제우주대회 '세계는 대전으로, 대전은 세계로'

NASA 등 60여개국 3,000여명 참가, 관광객 30만명  
우주항공 기술 비즈니스의 장, 우주축제 내실 운영

지난 2006년 10월 스페인 발렌시아로부터 낭보가 날아들었다. 대전시가 제60회 국제우주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대전시는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로 격상된 대전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전국제우주대회를 전문가와 함께 전국민이 참여하는 우주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학술대회와 전시회, 축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우주평화 음악회와 우주불꽃축제, 우주생활체험과 우주인 훈련 코스 등 시민참여 축제마당도 관심을 불러 모은다. 역대 최고의 대회로 치르려는 대전시의 노력에 힘입어 2,100여편의 논문초록이 접수되는 등 세계 우주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관심이 점차 대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국제우주대회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 우주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기회복, 경제침체 터널 '확 벗어난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3조5,205억원 조기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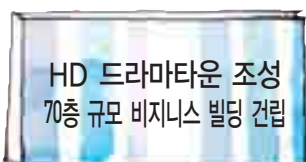
일자리 4만2,000개 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성과 확대



미국발 금융위기로 파급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대전시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최대 목표로 정하고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역기업 참여확대, 청년인턴십 확대, 시민참여형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률을 점차 낮춰온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올해 한해 목표 일자리를 4만2,000개로 정하고 청년인턴 채용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0년까지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매년 5%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지난 6월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추진해 7,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 서민경제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다.

D A E J E O N • M E T R O P O L I T A N • C I T Y



##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비즈니스 명소'

엑스포과학공원 비즈니스화, 관광·레저·문화복합단지 조성

대전 랜드마크화, 감천벨트·유성과 연계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엑스포과학공원을 고화질(HD)드라마타운과 CS파크(문화과학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구역, 비즈니스 빌딩 등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업무구역, 기존 공원시설을 묶은 과학체험 구역 등으로 재편성하는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새롭게 태어나는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도시브랜드 마케팅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약 16만5,000~23만㎡ 규모의 HD드라마 타운은 지난 1월 2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성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22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대전CT(Culture Technology)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CT센터는 콘텐츠 기술분야 집적 시설이다.



내년 상반기 2단계 212만 6,000㎡ 공급  
고용 3만 2,500명,  
10조 6,500억원 생산효과

## 대덕특구 산업용지 '세계 우수기업 속속'

미래형 산업단지 330만㎡ 공급

경제 인프라 확충, 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부흥



미래형 산업단지 330만㎡ 조성을 추진해온 대전시는 지난 3월 드디어 방현, 신성, 죽동지구 등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55만1,000㎡를 공급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둔곡, 신동, 용산, 전민, 문지지구인 2단계 212만 6,000㎡를 공급한다. 단계별 준공시기는 1단계는 2012년 12월이고 2단계는 2013년 12월이다. 이로

써 2010년 대전시의 산업단지는 1만4,673㎡ 규모에 고용인원은 3만2,500명, 생산액은 10조6,500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 A E J E O N • M E T R O P O L I T A N • C I T Y

도심 숲 공원 487개로 증가  
1인당 녹지면적(34㎡) 선진도시 수준



## 늘 푸른 환경수도 '녹색성장의 힘'

공원같은 학교·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한점 푸른 침표 도시 숲 속속 개장

지난 2006년부터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온 대전시는 그동안 500여만 그루를 심어 푸른도시를 가꿔왔다. 공원같은 학교조성과 녹지형 중앙분리대,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으로 푸른 도시를 가꿔나가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온 것이다.

지난 5월 야구장 30개 크기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심속 수목원인 한밭수목원이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갑천변 유림공원이 6월말 개장했고, 정부대전청사 도시숲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해 푸른띠를 잇는다. 유성구 원내동 구 서대전 IC폐도부지에 들어서는 진잠도시숲은 올 연말까지 조성된다. 지난 2006년 408개이던 도시공원은 내년 48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녹지율은 선진도시 수준의 녹지량을 확보, 15.7%로 올라가고 1인당 녹지면적도 24㎡에서 34㎡로 늘어난다.





체전 최초 항공스포츠 접목  
3천억 경제유발·5천명 고용효과

## 10월 제90회 전국체전 '경제·창조·화합'

45개 종목 65개 경기장, 선수·임원 2만5,000여명, 방문객 10만명  
우주과학 주제 개폐회식 운영, 경기시설 확충, 완벽한 손님맞이

오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밭운동장을 중심으로 대전 전역에서는 제90회 전국체전이 펼쳐진다. 정식종목 41개, 시범종목 3개, 전시종목 1개 등 총 45개 종목에 2만5,000여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전국체전에서 대전시는 종합성적 3위를 목표로 하지만 준비만은 일등을 지향한다.

경제체전을 표방하는 대전시는 한밭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인라인롤러장 인공암장 하키장 테니스장 등 5개 경기장을 신축 중이다. 그 밖의 경기장 35개소는 보수했다.

제90회 전국체전은 또한 창조체전으로 운영된다. 체전사상 최초로 패러글라이딩, 동력패러, 모험항공, 스카이다이빙 등 항공스포츠로 개최되는 한편 동력패러, 휠체어 수상보트 등이 동원된 특색있는 성화봉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한민족이 하나되는 화합체전과 자원봉사 활동이 돋보이는 일등체전으로 개최된다. 전국체전개최로 10만명이 방문, 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5,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도시재개발 대안 부각  
전국 언론 관심집중

07

## 무지개프로젝트 '8개동 서민복지 활짝'

지역공동체 복원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서민 자활능력 향상  
1·2단계 마무리와 3단계 사업 성과 도출



지난 2006년 가을쯤 대전의 동편 판암동 하늘에는 동실 무지개가 떠올랐다.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인 무지개프로젝트는 3년여를 넘기면서 도시재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다. 무지개프로젝트는 동구 판암동과 서구 월평2동과 대덕구 법동에 이어 3단계 동구 대동과 중구 문창·부사동에서 총 56개 단위사업에 266억원이 투입돼 진행된다. 3단계 무지개

마을인 동구 대동과 중구 문창·부사동에서는 복지센터 건립이 한창인 가운데 동네주민들은 무지개마을을 가꾸고 있다. 동네 신문을 만들고 무지개봉사단을 꾸려 동네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축제를 열고 꽃을 심어 예쁜 마을로 가꾸고 있다. 판암동과 월평동의 무지개는 내년이면 마무리 되고 대동과 문창·부사동은 2011년까지 완료된다.



생태호안·습지 등 친수공간 조성  
원도심활성화 1,870억원 파급효과



08

## 목척교 복원 '원도시 랜드마크 화려한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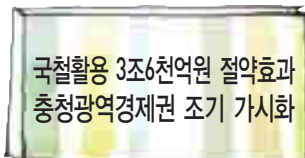
홍명사가 철거 착수, 생태호안·습지 조성 등 생태복원  
목척교 은행교 리모델링 등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대전천에는 큰 사건이 있었으니, 징검다리가 있던 자리에 다리가 만들어졌던 것. 이름하여 목척교. 그리고 거의 100년만에 목척교는 또다른 변화에 직면해 있다. 목척교는 나무줄기 세포를 기본디자인 모티브로 해서 살아 움직이는 미래형 유기체를 표현한 미래지향적인 다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해 중앙데파트를 철거한데 이어 올해는 홍명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두 건축물이 사라진 자리는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년 3월까지 대흥교 중교 은행교 목척교 선화교 1.08km 구간에는 생태호안과 습지가 조성돼 도심속 자연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게 된다.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은 원도심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으로는 약 1,870억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전~세종시~청주공항 광역교통망 '한달음 생활권'

계룡~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대전~행정도시 연결도로 확충사업의 연장건설 시행

충남 계룡시와 청주공항을 국철을 활용해 잇고 대전과 행정도시는 도로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충청권 국철을 활용한 광역철도 건설은 호남선과 경부선 대전선 등 3개의 국철노선과 충북의 충북선을 도시전철로 활용, 충남계룡시~대전 조치장~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총 86.5km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국철활용으로 3조6,00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시는 전액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도시~신구교(9.90km)와 행정도시~외삼동(8.78km) 도로를 대전역과 유성터미널까지 각각 연장해 대전과 행정도시간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D A E J E O N • M E T R O P O L I T A N • C I T Y



## 대전역세권 개발 '원도심 명품 재탄생'

대전역사 전면확장 등 역세권 개발사업 국비추가 확보  
뉴타운식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선도사업 착공 등

지역별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우선 비즈니스와 쇼핑 문화중심 명품공간으로 재탄생할 역세권개발이 관심을 모은다. 시는 동구 삼성·소세·신안·정동 일원 88만7,000㎡의 역세권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지난 5월22일자로 결정고시한 뒤 6월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할 계획이다. 상서·평촌지구를 비롯 8곳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14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도 지역인력 고용확대와 도시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동구 자양·용운 대동일원의 캠퍼스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한전주 지중화 등 기반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중앙시장의 먹자골목, 중구 응봉정이 거리,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도 내년까지 거리별 개성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미술관 · 박물관 명소

“이것이 바로 名品나들이”





## 대전시립미술관



양질의 전시를 부담 없는 관람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문화공간이다. 특히 미술관 건물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푸른 잔디와 조각공원, 그리고 야외 분수광장은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오는 7월 11일까지 제21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이 열리고 이어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1~4전시실에서 대전미술 '돌' -조각 그리고 공예 전시 이어진다. 5전시실에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소장품전 '산너머 산' 이 계속된다. 특히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주말과 연휴에 45인승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주말 가족단위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602-3225, 3217

◎ 오전 10시~오후 7시(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 소장품전 '산너머 산'

시립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산을 소재로 한 작품 16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지역의 원로화가 조평휘, 신현국, 이인영, 김철호, 이재호 화백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계룡산과 대둔산 등 친숙한 지역의 산 외에도 강경구 화가의 '북한산', 오승우 화가의 '한라산 백록담', 신장식 화가의 '금강산', 엄주택 화가의 '주왕산' 등 작가들이 사랑한 전국의 명산들이 담겨 있다.

### 대전미술 '돌' -조각 그리고 공예

지난해 열린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전시의 후속 기획전으로 지역미술의 활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1940년대부터 정체성이 확립된 1990년대까지 대전지역에서 활동한 조소 및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1전시장은 특별부문으로 대전미술사의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고 및 원로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2전시장은 공예부문을, 3~4전시장은 조각부문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무려 250여명의 대규모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로, 조각 부문 72명, 금속 부문 20명, 도자 부문 67명, 목공예 부문 30명, 섬유 부문 27명, 그리고 특별전으로 이종수, 이창호, 임상목, 황대형, 이의강 등의 작고한 작가와 최종태, 남철 등의 원로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 이응노미술관



시립미술관을 둘러봤다면 동측 잔디광장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응노 미술관도 둘러볼 일이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한국화의 거장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한 전국 유일의 이응노 전문 미술관이다. 프랑스의 건축가 로랑 보드앵의 설계로, 고암의 문자추상 형상화와 빛과 자연의 어우러짐을 주요 개념으로 설계한 미술관 건물

도 또 하나의 볼거리. 4개의 전시실을 구분해 고암의 기획전과 상설전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602-3270

◎ 오전 10시~오후 7시(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 파리의 동양인, 고암 이응노 주역전

‘고암의 시선-70~80년대 산수풍경전’에 이어 6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4전시실에서 계속되는 기획전으로, 1974년 고암이 주역 64글자를 인간형상으로 표현한 작품 65점이 전시된다. 1·2전시실에서는 미술관 소장품 중 고암의 대표작 15점을 전시하는 상설전 ‘고암, 대전을 만나다’를 관람할 수 있다.



## 여진불교미술관



대전시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기능보유자인 이진형씨가 설립한 불교미술 전문미술관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불교테마공원이다. 삼천석가모니좌상,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 석가모니고행상, 천진동자상 등의 작품과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동서남북 모든 공간에 부처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미술관 안에 조성된 높이 12m, 폭 8m의 대형 사방불(四方佛)과 부처의 전생과 탄생, 깨달음, 열반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여덟 단계로 나누어 표현한 미술관 외벽의 부조는 여진미술관의 명물이다. 934-8466

◎ 오전 10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 Art Museum





## 아주미술관

지난 2004년 5월 유성구 화암동에 문을 연 아주미술관은 사설미술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김억중 교수가 설계한 미술관 건물은 아름다운 조형미와 공간미로 그 자체가 빼어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기원전 유물에서 근·현대 회화, 도자기, 조소 작품 등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고 동양과 서양의 미술전을 적절하게 기획,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 뒤편에 위치한 전통한옥 향여조(恒如朝)도 둘러보길 권한다. 충남 홍성에 있던 320년 된 12칸 짜리 한옥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미술관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밀 공간으로 시원한 바람과 새소리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특별한 공간이다. 맞은편에 카페 '뮤제'도 마련되어 있다. 863-0055, 0037

◎ 오전 10시~오후 6시(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개관), 매주 월요일 휴관

작품설명 : 오전 11시, 오후 1시·3시·5시,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전시마다 상이)

### 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진전

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사진 85점과 설치작품 2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생전 김 추기경의 모습을 담은 김경상 작가의 작품을 통해 김 추기경의 삶이 '영원한 안식', '빛과 소금', '고맙습니다' 등 총 3부로 나뉘어 재조명된다. 김 작가는 2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황 바오로 2세, 마더 테레사 수녀의 발자취 등을 작업한 종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다. 6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 대전선사박물관



유성구 지족동 노은 선사유적지 은구비공원에 위치한 대전의 첫 시립박물관으로 대전의 선사 문화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선사시대 전문박물관이다. 2층 전시실은 원형구조에 노은선사 문화관과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문화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각 시대의 유물과 생활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자료실이 자리해 있다. 2층 전시실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 야외 체험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야외 체험장은 구릉 동쪽 사면에서 발굴된 유적 가운데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집자리 6개를 복원해 놓았고 학생들이 직접 선사 유물이 획득되어 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발굴체험장이 들어서 있다. 826-2814

☉ 오전 9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 무료영화 상영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친근한 박물관으로 다가서기 위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엔 니모를 찾아서, 아기와 나, 잊혀진 파라오, 한콕, 인디아나존스4 등 가족영화와 문화영화 등이 상영됐고 7월 영화는 6월 말쯤 결정,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영화는 1층 세미나실에서 토요일 오후 2시·4시, 일요일 오후 4시에 상영되며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7월말부터 8월까지는 평일인 수요일 오후 7시에 한차례 더 상영할 계획이다.

[museum.daejeon.go.kr](http://museum.daejeon.go.kr)



# Art Museum







##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계룡산 장군봉 중턱에 자리잡은 계룡산자연사박물관에는 1억4,000만년 된 공룡뼈, 각종 공룡화석, 완벽하게 재현된 맘모스 뼈, 중구 목달동에서 발굴된 600년 된 미이라 등 세계적인 희귀자료가 즐비하다. 특히 몸 전체 길이 25m, 높이 16m에 이르는 거대한 공룡 표본인 청운공룡 계룡이와 약 7만5,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맘모스, 지난 2004년 5월 중구 목달동에서 발견된 조선 초기 종3품 무관을 지낸 학봉 장군과 증손자의 미라인 학봉장군 미라 등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오는 연말까지 '기후변화와 자연생태' 특별전이 열린다. 사람에 의해 지구 대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인류에 의해 생명체의 멸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보는 전시로, 인류가 지구에 살기 훨씬 전에 살았다 멸종된 동식물 화석을 만나볼 수 있다. 824-4055~6

◎ 오전 10시~오후 6시(토·일·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개관)

매주 월요일 휴관, 어른 9,000원, 초·중·고 6,000원

### 공룡과 함께하는 청운 여름 과학체험 캠프

1억4,500만년 전에 살았던 거대한 청운이 공룡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2009 청운여름 과학 체험캠프가 준비되어 있다. 박물관 이색탐험, 별자리 강연 및 관찰, 과학체험 프로그램, 수학으로 풀어보는 과학, 캠프파이어, 청운 공룡과 함께 자기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기다린다.

Science English Camp는 일반 자연과학 체험캠프 프로그램 이외에 화석발굴체험, 수서곤충탐험, 농사체험, 여름밤 별 관찰, 연구소탐방, 청운이 공룡 옆에서의 하룻밤과 야영장 체험 등이 운영된다.

\*자연과학체험캠프(6만원) 267(7.25~26), 277(8.1~2), 307(8.22~23)

\*Science English Camp(27만원) 287(8.8~10), 297(8.15~17)





## 지질박물관



지난 2001년 11월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지질전문박물관으로 개관, 광물 2,300여점, 암석 300여점, 화석 1,200여점 등 총 3,800여점의 지질표본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입구에 들어서면 1층과 2층에 걸쳐 지구의 해양지각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지름 7m의 대형 지구본이 설치되어 다양한 바다 밑 지형을 한눈에 관찰 할 수 있

으며, 티라노사우루스, 마이아사우라와 드로마에사우루스와 같은 실물 및 복제공룡 골격 전시물을 비롯해, 공룡 알 등의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제1전시관에서는 지구의 내부구조와 세계의 다양하고 독특한 화석 표본들을, 제2전시관에서는 암석의 종류와 아름다운 색깔과 수려한 모양의 광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868-3797~8

◎ 오전 10시~오후 5시, 매주 일요일 휴관, 무료

### 지구의 신비 그리고 한국의 화석

지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증화석 및 북한화석 등을 비롯해 국내 각 대학과 박물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의 화석을 모아 오는 8월 31일까지 전시한다. 장소는 지질박물관 옆 지질시료동.



## 천연기념물센터



반달가슴곰, 수달, 공룡알·새발자국 화석, 문경 존도리 소나무 등 전국 각지의 천연기념물들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지상 1층 전시관에선 동물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등 각종 천연기념물을 영역별로 둘러볼 수 있고 이해를 돕는 체험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공룡알 화석과 공룡발자국 화석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무태장어 등의 박제, 그리고 살아있는 남생이와 미호종개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독도 천연보호구역과 제주도 천연기념물 등도 둘러볼 수 있다. 610-7610~9

www. nhc.go.kr ◎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 Art Museum





## 화폐박물관

지난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전문박물관으로 문을 열어 우리나라와 해외의 화폐, 100종의 근대 주화와 80종의 기념주화, 우표, 그리고 유가증권류를 포함한 역사적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하고 있다. 12만여 점의 화폐자료 중 4,000여 점이 시대별,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1,000년에 걸친 화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제1전시실 주화역사관, 제2전시실 지폐역사관, 제3전시실 위조방지홍보관, 제4전시실 특수제품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870-1000

◎ 오전 10시~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 여름방학 체험행사

지난 2007년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 유치원·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주 수요일에 '가방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아이들이 종이로 가방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그리고 써보는 체험이 이뤄졌다. 올해 역시 체험행사를 준비 중으로 7월 초순 경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체험은 무료로 4~6회 정도 진행되며 한 회당 대략 30~40여명이 참여한다.

[museum.komsco.com](http://museum.komsco.com)

글\_허용주 사진\_윤기중





대전 명품 O월드 · 한밭수목원 · 유림공원

## 전국 명소 두둥실~

### 중부권 대표 종합테마파크 ‘오월드’

오월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밤 10시까지 주말(토·일요일) 야간개장 운영에 들어갔다. 야간개장은 입장객의 안전문제로 제한되는 일부 놀이기구를 제외한 주랜드(동물원), 플라워랜드, 조이랜드(놀이시설)의 모든 시설이 대상이며 나이트 사파리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플라워랜드를 중심으로 시설된 야간경관조명은 주변 풍경과 어울려 더없이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분수거리는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또 오월드 개장과 야간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입장객을 대상으로 승용차, 자전거 등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 입장권 : 성인 8,000원(야간입장 6,000원), 청소년 4,000원( / 3,000원), 어린이 3,000원( / 2,000원), 자유이용권 : 성인 2만5,000원(야간입장 1만7,000원), 청소년 2만원( / 1만3,000원), 어린이 1만8,000원( / 1만원)

### 전국 최대 인공수림 ‘한밭수목원’

지난 5월 9일, 3단계 구역 개장에 따라 1~3단계까지 전면 개방돼 시민들의 품에 안긴 한밭수목원,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이다.

지난 1993년부터 38만7,000㎡ 부지에 총 30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평송청소년수련원 북측에 조성된 3단계 구역에는 장미원과 유실수원, 소나무원, 약용식물원, 목단원, 전통 정원, 암석원, 생태연못, 팔각정자, 잔디광장 등이 조성됐으며 수목 745종 7만3,000그루와 초화류 621종 9만2,000본이 식재됐다.

◎ 개장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10월~5월은 오전 9시~오후 6시)

◎ 입장료는 무료





## 엑스포과학공원 ‘아쿠아리조트’

여름 철 온 가족이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수상체험 놀이시설인 엑스포 과학공원의 ‘아쿠아리조트’가 지난 6월 중순 개장해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과학공원 중앙에 조성된 1,750평 규모의 아쿠아리조트에는 수상카페와 물 놀이터, 수상 체험장의 시설이 들어서 있고, 스텝 만점의 흔들다리, 비의 숲, 물 대포, 불가사리 물놀이터, 오징어 물놀이터, 거북이 등딱, 원드서핑 등 오감만족의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강화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는 수상카페는 발 아래로 헤엄치는 비단잉어를 감상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다.

◎ 개장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야간 개장 추후 공지)  
이용요금 : 1,500원(공원입장은 무료)



## 도심속 명품 생태공원 ‘유림공원’

유성구 봉명동 유성구청 앞 갑천변 5만 7,592㎡의 부지에 조성 중인 유림(裕林)공원이 2년여의 조성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8일 드디어 개장했다.

유림공원은 계룡건설산업 이인구 명예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것으로, 기부자의 이름 등을 사용하는 관례에 따라 공원명칭을 이 회장의 아호인 ‘유림(裕林)’으로 정했다.

유림공원은 우리나라 형상을 본 따 만든 생태연못과 벽천, 수변데크, 바닥분수, 정자, 전망대, 야외무대 등을 고루 갖추었다. 특히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안면도 소나무와 속리산 소나무를 대량 식재했고, 6만4,000여 본의 나무와 13만5,000여 본의 아름다운 꽃을 심어 도심속 명품 휴식공간을 자랑한다.

◎ 개장시간 : 주·야간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입장료는 무료



# 환경사랑 대전시민 녹색성장 1등도시 우리가 만든다



▲ 이종현



▲ 최은남



▲ 김석규

## ■ 이종현 | 44 · 대덕구 법2동 |

키친타월을 쓰는 대신 낱아서 입지 않는 면으로 된 헝겊가죽 등을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고 있다.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구입해서 조리한다. 주방세제를 쓰지 않기 위해 환경수세미를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복사기 용지를 재활용해 뒷면을 다 사용한 후에 분리수거한다. 의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지구환경에도 해롭다는 생각에 새옷을 사입기보다는 물려받은 옷을 입을 때도 많다.

## ■ 김석규 | 44 · 유성구 노은동 |

유기농산물이 시중 제품보다 가격 면에서 비싸긴 하지만 이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여 유기농산품을 이용하고 있다. 재활용품 이용이 곧 환경과 건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로 쇼핑은 벼룩시장이나 물물교환을 통해 한다. 대전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하다.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좀 더 합리화하면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고 매년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 윤난중 | 51 · 서구 월평2동 |

몇 년 전 한 패스트푸드점 사장에게 편지를 썼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안타까워서였다. 이런 마음에 일회용 그릇은 씻어서 다시 갖다주고 튀밥장수에게는 노란 철사를 모아서 주고 있다. 공중 목욕탕에서 물이 찰찰 나오는 수도꼭지를 잡다가 싸울 뻔한 적도 있다. 환경에서만은 오지랖이 자꾸 넓어진다. 다행스럽게도 가까운 친구들이 마음에 맞아 질려서 못입는 옷들은 돌려가며 입는다. 올 여름에도 10년 전 6,000원을 주고 산 가방을 쓰고 있다. 명품 가방 이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준다.

## ■ 최은남 | 37 · 대덕구 법동 |

샴푸물에 당분과 EM효소를 넣고 상온에 일주일 정도 두면 EM발효액이 만들어진다. 수질오염이 심한 세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EM발효액을 만들어서 세탁에

사용하고 있다. EM발효액으로 변기나 하수구 청소를 하고 화초에 물과 희석해 주기도 한다. 음식물쓰레기도 EM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한다. 또한 장바구니는 나에게 필수 품목이다.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면손수건을 이용한다.

## ■ 임지연 | 41 · 서구 내동 |

2002년부터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유기농식품을 먹기 시작했는데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하는 유기농산물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한약과 더불어 유기농 식품 이용으로 아토피와 천식이 치료됐다. 옷은 비누로 손빨래를 하고 린스 대신 식초를 이용하고 있다. 수질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유나 두유 용기 행군 물을 화분에 준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리할 때에는 친환경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 ■ 임미임 | 45 · 유성구 어은동 |

자전거는 나의 발이다. 자전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타기 시작해 나에게도 아주 익숙한 교통수단이다. 기름 안써서 좋고, 공기 오염시키지 않아 좋고, 건강 챙겨 좋고 이 좋은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좀 좋을까? 자전거 도로가 인도 안에 있어서 마음놓고 탈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더 없이 좋겠다.

## ■ 김미숙 | 41 · 중구 태평동 |

생협에서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협에서는 잘 씻지도 않고 태울 때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에 담고 있다. 집에서 나오는 달걀 종이팩은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한다. 금산에서 다슬기역기스를 공급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은 오염이 많이 돼 예전처럼 잘 잡히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신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도시 속에서만 살다가 생협을 알게 되면서 자연파괴 현실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다.



윤난중▶

▼임미임

◀남궁보람

김정옥▶

임지연▲

김미숙▶

정금성

▼김경희

이설진▶

정은주

◀신현숙

#### ■ 김경희 | 48 · 서구 내동 |

휴지대신 주로 거즈수건을 사용하고 있다. 휴지는 나무를 잘라 만들 뿐 아니라 색소와 향이 들어가 있고 양변기에 넣으면 분해가 잘 안돼 수질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는 머리 표피와 머릿결을 상하게 한다. 또한 머릿결을 개선시키는 화학품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 따라서 샴푸나 목욕세제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화장실 청소도 EM발효액을 이용하고 있다. EM발효액은 화분의 비료로도 이용하는데 화초잎이 건강하다.

#### ■ 정은주 | 42 · 유성구 하기동 |

환경에 도움이 될까 싶어 형견 생리대를 딸 있는 엄마들에게 소개도 하고 선물도 하여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회용에 익숙해지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탁세제 대응으로 수질 정화기능이 있는 EM효소를 이용한다. 재활용매장을 자주 이용해 쓰던 물건도 내놓고 아이들 옷을 구입하는데 새옷보다 피부에 더 좋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나 식품안전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뤄주었으면 한다.

#### ■ 이설진 | 28 · 서구 갈매동 |

요즘 도시민들은 좀처럼 걷지를 않으려 한다. 환경도 살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기에 한 두 정거장 거리는 걷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꼭 챙기는 것은 개인 컵과 장바구니다. 사무실에서 잠깐 자리를 뜨는 경우에도 컴퓨터 모니터 전원을 꺼 전력 소모를 줄이고 있다. 시는 환경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갔으면 좋겠다.

#### ■ 김정옥 | 46 · 중구 선화동 |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느라 자칫 환경보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후세에 복원하느라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비용을 이 중으로 지불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100년, 200년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원칙하에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마을이나 직장 단위와 같은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정책과 시책이 있었으면 한다.

#### ■ 정금성 | 35 · 중구 선화동 |

에너지 절약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해 지난 3월초부터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다. 대전의제 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팀장으로서 행사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행사때 썼던 현수막은 장바구니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다. 행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정한다. 또한 일회용 컵을 아무런 의식없이 마구 쓰고 있는데 개인 컵을 가져오도록 한다.

#### ■ 신현숙 | 46 · 유성구 신성동 |

잘 썬지 않는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처음엔 형견 생리대와 섞어서 사용하다 지금은 완전히 형견 생리대만을 쓰고 있다. 환경에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흡수력도 좋고 착용감이 좋아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에는 거품증진제, 유화제 계면활성제, 색소, 향료 등이 들어있어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친환경세제를 구입해 쓰고 있는데 물에 분해가 잘되고 무척 순해 피부가 좋아짐을 느낄 수 있다. 생활의 지혜 한가지. 주방용 후드의 기름때를 청소할 때 EM효소를 스프레이에 뿌려 닦으면 잘 닦인다.

#### ■ 남궁보람 | 28 · 서구 일평동 |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을 듯하다. 대전의제 21에 근무하면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 사무실에서는 이면지 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다. 주방세제나 샴푸, 비누 등은 친환경제품을 선택해 수질오염을 줄이고자 한다. 종이컵은 분해되는데 20년이 소요되고 회수율은 고작 14%에 그친다니 종이컵만 사용하지 않아도 환경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개인 컵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 박정현 | 46 · 중구 선화동 |

흔히 거실 전등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사람이 있든 없든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습관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 환경을 우선시하는 녹색행정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특히 이용하기 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률이 2~3배 높다.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 이소영 | 40 · 유성구 관평동 |

아이들과 함께 탄소발자국 계산 사이트를 이용한다.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계산법으로 검색사이트에 탄소발자국이라고 치면 검색이 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쓰는 물건이나 자가용 이용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수치로 알게 되면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120억개가 소비된다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개인 컵을 휴대하고 다닌다.

■ 이영 | 35 · 유성구 관평동 |

남편이 원자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친환경에너지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도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량으로 사육되는 소의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보다 20배의 온실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옥수수 등 곡물사료를 먹이기에 곡물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곡물 재배를 위해 지구의 허파 구실을 하는 우거진 열대우림이 곡물 재배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장바구니를 꼭 챙긴다.

■ 제성애 | 37 · 유성구 관평동 |

친정엄마께서는 늘 쌀뜨물을 통에 받아 놓아두었다가 화분에 주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 집집마다 나오는 쌀뜨물도 양이 엄청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하니 수돗물도 아끼고 수질오염도 줄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이들 입힐 헌옷을 구해 입히거나 버룩시장에서 옷들을 산다. 아이들이 다행히 헌 옷을 잘 입어준다. 내가 엄마를 보고 배웠듯이 우리 아이들도 나를 보고 배우려니 싶어 더욱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 신재은 | 37 · 유성구 관평동 |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호일이나 랩, 비닐장갑 등 일회용품 사용을 일절 안하고 있다. 물건을 살 때도 나름 규칙을 세워두고 있다. 될 수 있으면 과대포장된 것은 사지를 않고 슈퍼에서 판매하는 물은 사지를 않는다. PT병이 일회용인데다 물류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이런 것도 다 낭비라 생각해서다. 빨래세제 덜 사용하기, 쓰지 않는 전원플러그는 빼놓기 등도 내가 늘 신경쓰는 환경사랑 표현들이다.

■ 김민아 | 42 · 서구 갈마동 |

중학교 2학년과 초등 6학년 형제를 두고 있는데 요즘 우리 애들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푸른 지구를 만든다는 거창한 뜻으로 나부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권유했다. 우리는 큰일을 보고나서 비대를 사용하고 면손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화장지보다 훨씬 쾌적함을 느끼게 된 우리 아들들은 이제 본인들이 좋아서 면수건을 쓰고 있다. 휴지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모른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환경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

■ 심석영 | 48 · 유성구 전민동 |

우리집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아주 착한 동물 지렁이가 있다. 과일이나 야채 껍질처럼 소금기 없는 음식물들은 모두 지렁이들이 처리해주고 있다. 지렁이들이 자랐던 흙은 화분으로 옮겨 주는데 지렁이 분변토는 일반 흙보다 꽃과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하고 병해충에도 강한 화초로 만들어 준다. 우리집에 처음 올 때는 편지봉투에 담겨 왔던 지렁이들이 이제는 열개 정도의 화분 안에 다 살고 있다. 집집마다 지렁이를 키워 환경도 살리고 화초도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유인자 | 59 · 유성구 장대동 |

식사 모임에서 나는 늘 기피대상이다. 대놓고 “유인자 옆에 앉지 마라”라고들 한다. 음식도 많이 못 시키게 함은 물론, 음식을 남기면 남긴다고 잔소리를 하니 그렇다. 남편은 식당음식을 다 견어 먹는 나를 보고 살찐다고 뭐라 한다. 때로는 나도 사람인지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아난가 고민도 해보지만, 나는 앞으로도 지난 2004년부터 실천해온 빈그릇운동을 씩씩하게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마디. “여보, 나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식당에서 배불리 먹는 날은 한 끼 굶으니 살찔 염려는 마세요.”

▼ 박정현



▲ 이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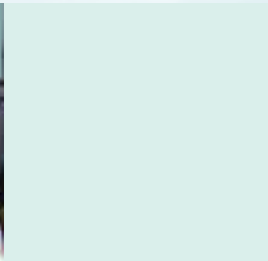
▼ 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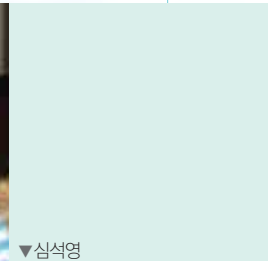
▲ 유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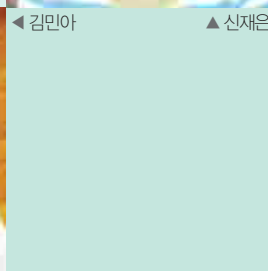
▲ 제성애



▲ 김민아



▲ 심석영







▲ 유연옥



▼ 박범숙



▲ 이미정



▼ 한재영



▲ 김정득



▼ 정경주

#### ■ 유연옥 | 50 · 유성구 어은동 |

환경사랑 실천운동의 한가지로 형견 생리대를 쓰고 있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서 그동안 사서 쓰는 생리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형견을 쓰고 나서부터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다. 남들은 귀찮아서 어떻게 빨고 삶느냐고 하지만 사용할 때의 상쾌함과 지구를 살린다는 자부심은 귀찮음 이상이다. 주방세제 대신에 쌀뜨물과 밀가루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세제가 스며들까 싶어 사용하지 못하던 질그릇도 사용하고 있다. 결국 환경사랑은 웰빙의 삶과도 통하는 것이다.

#### ■ 박범숙 | 41 · 동구 주산동 |

우리집은 수돗물을 아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우선 소변을 수세식 변기에 보지 않고 따로 받아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도 받았다가 걸레도 빨고 청소도 한다. 수돗물이 참 많이 절약된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소변은 따로 봐 줄 것을 권유할 참이다. 우리집 닭도 이야깃거리다. 요 녀석이 참 효자다. 음식물도 처리해줄 뿐 아니라 달걀도 주고 병아리도 선물해준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프리미엄이라고나 할까?

#### ■ 이미정 | 39 · 유성구 관평동 |

떨어진 메리야스와 팬티는 조각으로 만들어 설거지 전에 그릇들을 한번씩 훑치고 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이 아니어도 이렇게 한번씩 닦아주면 세제는 물론이거나 물도 절약된다. 거즈 손수건은 뒷물수건으로 사용하니 휴지가 많이 절약된다. 지난달부터는 환경사랑 실천이 한 가지 더 늘었다. 형견 생리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편하고 촉감도 좋고,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싶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 음식물쓰레기통은 꼭 사용해주시는 것이다. 비닐에 담아 버리게 되면 그만큼 비닐봉투 사용이 늘게 되기 때문이다.

#### ■ 김명화 | 54 · 서구 둔산동 |

나는 어떻게 하면 생활하는 가운데 비닐봉지를 덜 버릴까를 고민한다. 장바구니는 필수고 플라스틱통을 따로 들고가 생선이나 고기 등을 담는다. 어쩌다 생긴 비닐봉지는 재활용을 해 다음 시장을 볼 때 갖고 나간다.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 보면 비닐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비닐봉투를 덜 쓰려는 노력과 함께 접어서 내놓은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유팩이나 컵라면 용기도 깨끗하게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 ■ 이현주 | 32 · 유성구 관평동 |

우리집은 쓰레기 버리기를 전라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정한 양은 한달 10ℓ.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니깐 10ℓ 짜리 쓰레기 봉투 한 장으로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텃밭에 버리고 있는데 이 덕분에 작물도



◀ 김명화



이현주 ▶

잘 자란다. 물론 음식물은 싱크대 개수대에서 물로 많이 행궈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락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EM발효액과 목초액을 청소할 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자연액들은 확실히 세제류를 덜 쓰게 한다.

#### ■ 한재영 | 44 · 유성구 관평동 |

어디 놀러갈 때 먹을 것과 함께 꼭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쓰레기 담을 봉투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남편도 이제는 쓰레기를 잘 챙겨 갖고 온다. 오늘 아침에도 유치원에서 소풍가는 아들 의석(7)이 편에 쓰레기를 담아오라며 봉투를 챙겨보냈다. 아마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먹을 만큼만 사기를 실천하고 있다. 덕분에 어떤 때는 하루에 슈퍼를 두 번씩 갔다오기도 한다.

#### ■ 김정득 | 36 · 유성구 관평동 |

아이 또래 중에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과자만 조금 입에 대도 피부가 금방 달라지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지만 요즘에는 열병 중 일곱 여덟명은 아토피로 고생한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라도 환경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재활용 비누사용하기, 재활용 철저히 하기(사실 그전에는 우유팩도 대충 버렸다), 섬유유연제 사용하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 ■ 정경주 | 55 · 서구 가장동 |

구멍이 난 양말이나 찢어진 러닝셔츠나 면티셔츠를 집집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집은 기름그릇이나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난 불판을 닦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다. 다른 집에 가보면 키친타월이나 휴지를 돌돌 말아 닦고 있는데 우리집 방법을 적극 권하고 싶다. 휴지도 절약될 뿐 아니라 기름기가 많이 닦여서 세제도 덜 쓰게 된다.

# 디가사사진관



**사진을 보내주세요** 가족이나 이웃들의 모습, 여행 중 찍은 풍경 등 살아가면서 인상 깊거나 재미있게 느꼈던 장면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실 때에는 사진에 얹힌 간단한 설명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함께 써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소 재 : 자유
- 작품조건 : 300만 화소 이상, 18cmX13cm 이상, JPG 파일(설명 첨부)
- 마 감 : 매월 15일(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명기)
- 보내실곳 : tjphoto@daejeon.go.kr • 문 의 : 042)600-3139



## ●● 우리 이대로

내 생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대관령 양떼목장을 찾았다. 푸른 초원과 순한 양들을 구경한 뒤 목장의 시원함을 만끽하며 삼각대를 세워놓고 찰칵~ 그런데 아내처럼 팔이 아래로 향해야 하는데 팔을 들고 찍어서 비대칭이 되어버렸다.  
장동우\_ 서구 가수원동



## ●● 엽~떼요

며칠전부터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도 아니고 "엽~떼요~"도 아니고 "여! 우어~ 우어어어!!!" 하는 영준이.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다가 온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기로 한참을 웃겼답니다. 이런 맏(?)에 살고 또 힘이 납니다.  
박성백\_ 서구 복수동



## ●● 신혼부부 같은 부모님

환갑을 기념으로 태국여행을 다녀오신 부모님.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아빠 엄마 사랑하고요. 애들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선\_ 중구 태평2동

## ●● 99일째 한 식발식

세상에 태어난 지 99일 되던 날, 100일을 하루 앞두고 배냇머리를 밀었습니다.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해 눕혀놓고 시원하게 밀었죠. 이녀석, 머리미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쁘게 웃기만 하네요. 아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김화영\_ 동구 판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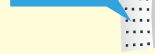
365 일 24 시간 연중무휴진료



# 연세내과의원

원장 박준용 · 김원영 · 김명수 · 김현영  
수면내시경 · 대장내시경 · 성인병검진 · 4대암검진

연세내과(4층)  
1층 이안경원



하나은행

←도마동

조흥은행

은하수APT

향촌APT

갤러리아  
● 백화점(둔산)

대덕대로→

● KB(국민은행)

시청

※유료광고

둔산 타임월드 정문앞(이안경원 4층) 485-8000



# 모국어로 도와주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구 월평동 240번지 이주여성 긴급지원 대전센터. 이주여성들을 모국어로 감싸주는 곳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여성부 산하기관으로 대전센터는 지난 1월 29일부터 상담업무를 시작해 그동안 600여건의 상담과 통역, 법정진술서 번역 등의 지원사업을 펴왔다.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구조를 요하는 사안부터 가족갈등, 이혼상담, 법률상담과 같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 등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해결해주고 있다. 여타의 기관들이 이주여성들의 적응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대전센터는 영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중국어 등 7개언어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직접 이주여성들의 상담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600여건의 상담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과 가족갈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은 전화나 방문 상담 및 인터넷 상담 모두 가능하고 현장방문도 요청할 수 있다. 전화는 365일 24시간 진행하고 방문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김춘경팀장은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약 2,7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극히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다”며 가까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의료 및 법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이주여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곳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전화 상담 1577-1366, 483-1633, 485-1633, 488-2979 • 방문상담 서구 월평동 프리머스 영화관 건너편 아산빌딩 5층
- 인터넷 상담 <http://cafe.daum.net/dj15771366>



대전사랑

대전의 모든 생활정보를 한 곳에!

맛집.문화.교통.부동산.지역뉴스

지역정보검색포털사이트 대전사랑

<http://Lovedaejeon.kr> 검색창에 대전사랑을 검색하세요.

※유료광고

# 대전시내버스 노선 개편 6개월 정시성 · 이용만족도 더 높인다



56년만의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한 대전시는 정시성 확보와 친절도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BMS(버스운행관리 시스템)를 도입하고 불법주정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 버스에 기사전용 마이크가 비치되고 본격적인 친절교육에 돌입하는 등 감동을 주는 시내버스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 시민 4명 중 1명 이용, 만족도 급상승

56년만에 이루어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지난 해 12월30일 노선개편 후 1개월부터 최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조사 때보다 23%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5일 시행한 1차 조사 때는 만족도가 44.9%에 그쳤다는 응답이 55.2%를 차지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빠졌다는 의견은 점차 낮아져 지난 5월 조사에서는 7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나빠졌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한편 노선개편 후 시내버스승객은 하루 평균 42만3,000명으로 늘어나 개편 전보다 3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 도시철도와 맞먹는 정시성 확보

새로운 노선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대전시는 이제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도시철도와 같은 일정한 시각에 일정 정류소를 통과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대전시내버스. 드디어 7월부터 BMS(Bus Management System; 버스 운행관리시스템)를 도입한다. BMS시스템은 GPS를 활용한 실시간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으로 시내버스 일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버스가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정류소를 언제 지났는지, 심지어 정류소에 섰는지 아니면 그냥 갔는지, 앞 뒤차와는 몇 분 간격으로 가는지, 정해진 노선을 따라 가는지, 문을 열고 가지는 않는지까지 모두 BMS관계 시스템에 모니터링이 된다. 이 같은 정보는 바로 시내버스 운전자 단말기로 전달돼 바로 앞 뒤차와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정시성을 위해 시가 공을 들이는 분야는 또 있다. 불법 주정차량 관리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에 상습 주정차 구간 65개 노선을 특별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대전시가 자체개발한 일명 독수리눈(EEB; Eagle Eye Bus)을 장착한 봉고 네 대를 집중적으로 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대표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고속터미널 앞, 대전역 주변, 백화점 세이~서대전 4가, 도마동 3가~내동 4가, 롯데백화점~용문 4가, 유성시장 앞, 오정4가~한밭대교 등이다.

정시성이 확보되면 각 정류소마다 통과 노선의 시간표를 부착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같은 시내버스를 만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 주요 부도심 버스노선 막차시간 연장

지난 5월 15일부터 대전역을 경유하는 주요 부도심 노선의 막차시간이 약 40분 연장됐다. 이에따라 대전역 경유 막차시간이 오후 10시 30분~40분에서 오후 11시 10분~20분으로 조정됐다. 연장된 노선은 급행 1번과 2번, 311번, 511번, 606번 등 5개 노선이다. 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노·사와 협의, 이용수요가 많은 노선의 막차시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첨복단지 유치기원·친절교육 등 서비스 향상 앞장

최근 시내버스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다. 우선 헤드마이크를 장착하고 인사하는 운전사들이 눈에 띈다.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목표로 인사하기를 최우선으로 꼽고 올해까지 이를 정착시킨다는 방침. 이를 위해 지난 6월말까지 헤드마이크를 지급하고 인사를 독려하고 있다. 홍삼 캔디를 승객들을 위해 준비한 시내버스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통이나 핸드타월도 비치하는 버스도 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던 버스 내 봉걸레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고 회사별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 기사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고 있다. 향기로운 버스를 만들기 위해 방향제를 달고 달리는가 하면 시내버스 기사 가슴에 스마일 배지를 달아주는 회사도 있다. 찾아가는 홍보마케팅도 색다른 풍경이다. 각 업체에서 자사노선 경유 대단위 아파트나 학교를 방문해 자사서비스를 홍보하는가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앞두고 대전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첨복관련 스티커를 시내버스 전면부에 부착했다.

글 김순조 사진 윤기중



노선개편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대전시내버스는 친절도와 정시성 향상에 나섰다. 경익운수를 비롯한 버스회사들은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홍삼캔디를 비치하는(선진여객) 등 승객 감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자전거보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대전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 인프라 확충,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운영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자전거 교통수단 부담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73%에 불과하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올해 3%까지 뛰어 올랐다. 내년 말 목표는 5%대 진입이다.

특히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전국적으로는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 4주 이상 치료시 40만원 보상

대전시는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5억6,5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LIG 손해보험)에 가입, 지난 4월부터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3,300만원 한도(15세 미만 제외)에서, 휴양장에 시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4,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치료시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며 교통사고를 낸 경우엔 벌금은 2,000만원까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 형사합의금은 1인당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5월 한 달간 총 9명 360만원 수혜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한 달간 대전시민 9명이 자전거 보험금을 수령, 자전거 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사고피해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팔과 다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대부분으로, 골절 진단금 40만원 등 총 36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청구서(당사 양식)와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 담당 600-3742

LIG 손해보험 02)6901-2518

※자전거보험 자세한 안내는 [bike.daejeon.go.kr/bike](http://bike.daejeon.go.kr/bike) 참조



Www.best-ad.co.kr

※유료광고



대전8경 맥주잔  
대전8경 소주잔

상패.트로피.명패.판촉물.공예품.기념품제조  
레이저가공.센딩.실크스크린인쇄

베스트광고타운

042)252-4577~8, 팩스:042)253-6934

메일:bestadco@yahoo.co.kr



## 자전거 보험 혜택 받은 방명일씨 “자전거 도시, 이쯤은 되어야죠~”

직장인 대덕구 평촌동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택인 유성구 관평동 집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방명일씨(44)는 지난 4월 29일, 퇴근길에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4공단 ENP(이엔페이퍼)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쪽으로 진행 중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보도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방씨는 차아 3개가 부러지고 허벅지 근육에 심각한 타박상과 여기저기 찰과상을 입었다.

새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 대형할인마트를 찾은 방 씨는 자전거 판매 직원으로부터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바로 대전시청으로 전화를 걸어 보험사를 확인했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 보험금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방씨는 “보험사와 협의를 하다보니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단 주수가 낮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자전거타면 즐거운 혜택 팡!팡!

### • 자전거 단체 무료대여

지난 3월부터 각 기관 및 단체 행사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단체 대여는 5대 이상부터 최대 150대까지 가능하며 대여자가 대여 장소에서 직접 수령 및 반납해야 한다. 대여 장소는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회덕정수장(대덕구 연축동)이며 대여기간은 1일로, 조정 가능하다.

**신청방법** : 인터넷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http://www.daejeon.go.kr)),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bike.daejeon.go.kr/bike](http://bike.daejeon.go.kr/bike)), 대전사랑시민협의회([www.ilovedaejeon.or.kr](http://www.ilovedaejeon.or.kr)),

**전화예약** : 대전시 자전거도로담당 600-3741~3  
대전사랑시민협의회 489-3290, 3293

### • 음식점 · 의류점등 866개소 5~10% 할인

대전시는 음식점을 비롯해 이 · 미용업소, 꽃집, 안경점, 의류점 등 총 866개소의 할인업소와 제휴,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5~10%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업소 입구에 ‘자전거 이용고객 요금할인업소’ 라는 표찰이 게시되어 있다.

자세한 업소현황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홈페이지 [bike.daejeon.go.kr/bike](http://bike.daejeon.go.kr/bik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축구장 입장료도 1,000원 싸게

자전거를 타고 축구장에 오면 입장료 1,000원이 할인된다. 시티즌 경기 당일 월드컵 경기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면 경기장 내에 마련된 자전거 보관소에서 할인 스티커를 발급해주는데, 입장권 구매시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셀프스튜디오 1시간 3만원



엄마,아빠가 직접 찍어주는 셀프스튜디오를 예약 받습니다.

10주년특별행사 한가족 가족사진 걸기 현금가11만원

거품 없는 성장앨범 37만원을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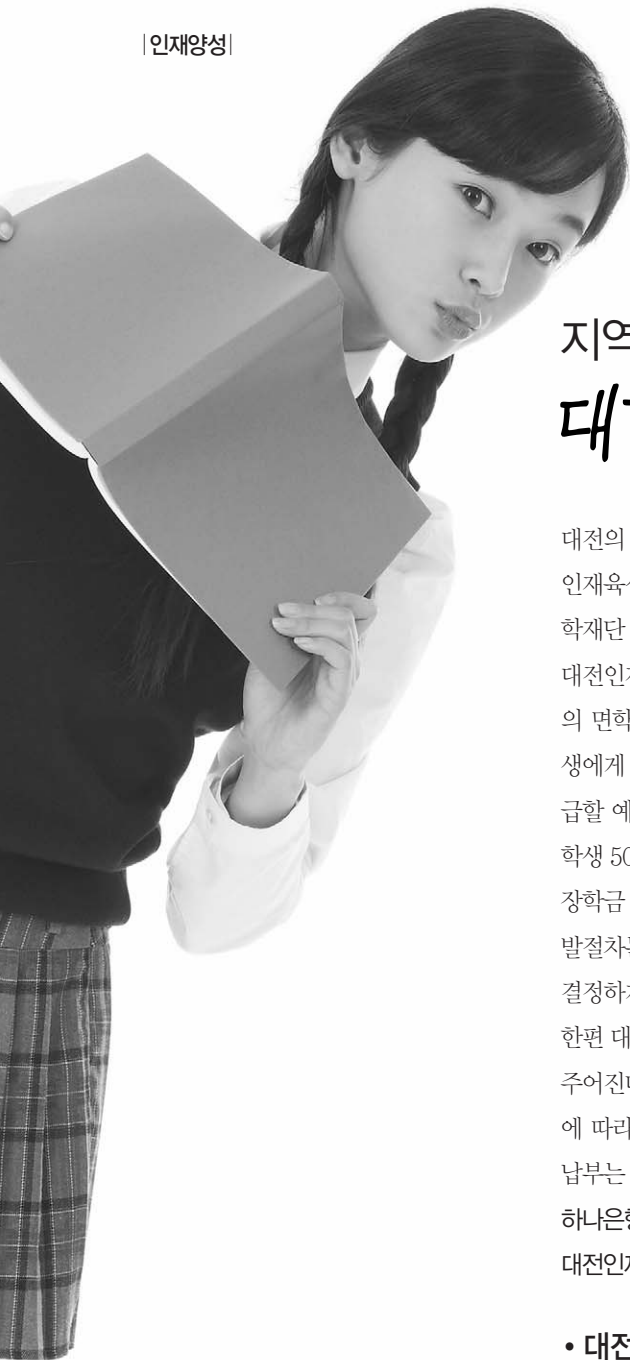
원본과 수정본을 시디에 담아 드리는 명품증명사진

매월 15일은 7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사진을 무료로 증정 합니다.

**행복한사진관** <http://happy474.com>  
전화문의: 042-584-6918



※유료광고



## 지역 동량의 든든한 후원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났다

대전의 인재를 키우는 향토장학재단이 났다. 장학기금 200억원을 적립목표로 하는 대전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난 5월 희망의 닛을 올렸다. 지난 해 12월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공포된 지 5개월 만이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우리 지역인재의 발굴 양성과 저소득층 우수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 것이다. 해마다 400명 정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10월쯤 신청서를 접수해 12월쯤 선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대학원생) 70명 등 모두 400명이다. 장학금 종류는 재능장학금(120명), 희망 장학금(120명), 성취장학금(160명)이 있으며 선발절차는 장학금 지급신청서와 학교장 및 구청장 등의 추천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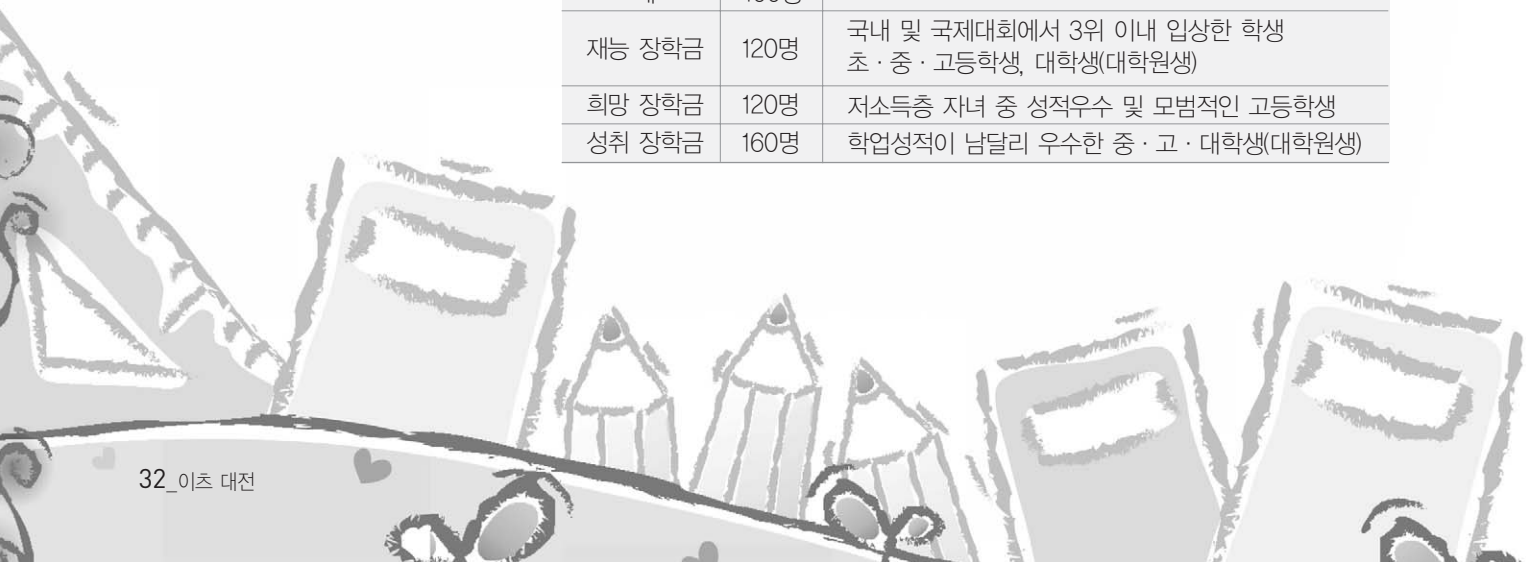
한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장학금 기탁(기부)을 받고 있다. 기탁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 및 법인은 소득금액이 공제되고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탁금은 방문(대전시청 11층), 전화, FAX 모두 가능하다. 납부는 무통장입금과 자동이체(CMS) 방법이 있다.

하나은행 622-910048-89105, 농협 301-0017-5616-11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600-5816~7, 팩스 471-2441

### • 대전인재 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금 종류	인원	지급대상
계	400명	
재능 장학금	120명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희망 장학금	120명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우수 및 모범적인 고등학생
성취 장학금	160명	학업성적이 남달리 우수한 중·고·대학생(대학원생)







한국폴리텍Ⅳ대학  
KOREA POLYTECHNIC IV

## 학비 걱정 없이 취업교육 받는다 “기술은 나의 힘”

전문적 기술인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은 특수목적의 국책대학으로, 기존의 24개 기능대와 전국 각지에 소재한 21개 직업전문학교들을 한데 묶어 2006년 ‘한국폴리텍’ 대학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재출범했다.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이 모태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에 걸쳐 한국폴리텍 I 대학부터 VII대학까지 7개 대학과 4개의 특성화 대학 등 모두 11개 대학 38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폴리텍Ⅳ대학은 대전을 본부로 하여, 충남·북 지역에 5개 캠퍼스(청주, 아산, 홍성, 제천, 충주)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1년 동안 약 2만 9,000여명의 훈련생을 배출해 냈다.

한국폴리텍Ⅳ대학은 대전 시민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입학하여 학비걱정 없이 기술을 익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 학문중심이 아닌 직업 중심의 대학이다. 취약계층, 대졸실업자,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훈련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한다.

구분	과정명	기간	장소	인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포토샵	7.1~7.10	대학 본교	25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보일러시공및취급	6.29~7.3	대학 본교	30명
	전기산업기사자격증과정(필기)	6.27~8.29	분원(탄방동)	30명
	엑셀(초급)	7.6~7.10	분원(탄방동)	30명
	전산회계(초급자)	7.6~7.17	분원(탄방동)	30명
	동영상제작	7.6~7.10	분원(탄방동)	30명
	워드프로세서(한글2005)	7.6~7.10	분원(탄방동)	30명
	도면보는법(기계)	7.6~7.10	중소기업센터 벤처타운	30명
	2D-CAD[AutoCAD]-주말	7.11~7.25	분원(탄방동)	30명
	전기공사실무	7.13~7.17	대학 본교	30명
	포토샵(초급)	7.13~7.17	분원(탄방동)	30명
	프리젠테이션기초(파워포인트)	7.13~7.17	분원(탄방동)	30명
	C프로그래밍(기초~활용)	7.13~7.24	분원(탄방동)	30명
	2D-CAD[AutoCAD]	7.13~7.24	중소기업센터 벤처타운	30명
	엑셀(중급)	7.20~7.31	분원(탄방동)	30명
	Unigraphics NX4 [모델링]	7.20~7.31	분원(탄방동)	30명
	시퀀스제어	7.20~7.24	분원(탄방동)	30명
	전산세무회계(중급자)-7월	7.20~7.31	분원(탄방동)	30명
	홈페이지제작(기초)	7.20~7.24	분원(탄방동)	30명
	포토샵(중급)	7.20~8.7	분원(탄방동)	30명
	프리젠테이션실무(파워포인트)	7.20~7.31	분원(탄방동)	30명
	엑셀실무고급(매크로&VBA)	7.20~8.7	분원(탄방동)	30명
	모터제어	7.20~7.31	대학 본교	30명
	CNC 공작기계 실무[주간]	7.20~7.29	대학 본교	30명
실업자훈련	전기공사	5.1~8.31	대학 본교	30명
	TIG용접 / CO <sub>2</sub> 용접	6.15~9.11	대학 본교	20명

- 한국폴리텍Ⅳ대학 (www.kpc4.ac.kr) 직업훈련 문의처
- 둔산 분원 : 서구 탄방동 672 조이빌딩 9층 (477-3285)

- 대학 본교 : 동구 가양2동 91-2 (670-0530~7)
-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타운 : 대덕구 신일동 1687-2 (864-4502)



##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의정

대전광역시의회는 시정과 의정활동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접수방법 :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대전  
광역시의회, 우편번호 302-789), 방문,  
인터넷(<http://council.metro.daejeon.kr>)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접수 후 의사담당관실에서 내용별로  
소관 위원회 지정 회부)



## 교육복지 확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토론회 열려



❶ 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전문가,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 활성화 방안을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교육복지 확대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전문가,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 활성화 방안을 통한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진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시장 직속 하에 교육취약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심의, 조정하는 교육복지지원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특히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든 단위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미애 대전대 교수는 현 교육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교육복지 관련법 부재, 교육복지 조직 협력체제 미확립 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양희석 대전시교육청 사무관도 "저소득층이 밀집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역설했다.

## 전국 최초 어린이 안전 조례 만든다

어린이를 국가 및 지역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신행 의원은 지난 6월15일 어린이 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국가 및 사회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좌담회에 참석한 진갑순 문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은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 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안전사고 사망률(스웨덴·영국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보다 비교적 높다”며 어린이 안전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 김미희 샘머리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은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갈등아기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서 제기



❶ 지난 6월 10일 열린 안전하고 클린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치안 방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10일 '안전하고 클린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

회'를 개최한 조신행 의원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행복한 도시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6대 추진 전략 영역에 대한 미션을 설정하고, 부문별 추진계획을 통해 창조도시, 안전도시, 클린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도시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과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창조도시 연합캠퍼스 구축, 창조인력은행, 커뮤니티 커넥트 사업, 상상포럼 등 26개 핵심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창조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안과 방법시스템 구축, 불법오락실 등 퇴폐업소 근절,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강남의 경우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30%의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충남 아산·천안의 경우 CCTV 412대 설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은 올해 추가신설을 포함해 228대의 CCTV가 있으나 통합관제센터 없이 관할 지구대가 모니터링하는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의원 대전YMCA 공로패 대한적십자사 감사패 수여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지난 6월 5일 대전YMCA로부터 ‘평화사랑 유아 마라톤대회’ 등 YMCA의 공익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대전YMCA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유아들이 꿈꾸는 평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개최되는 평화사랑 유아 마라톤대회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직접 대회에 참가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이어 18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으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조례안’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your 옥천포도축제

15~19일, 옥천읍 공설운동장 일원  
다채로운 문화행사 · 체험프로그램

옥천포도의 모든 것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제3회 옥천포도축제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옥천군 옥천읍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포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와인, 포도원액 등 다양한 포도가공품을 만날 수 있다. 포도 빨리 먹기 대회와 포도알 수 및 당도 알아맞히기, 포도알 높이쌓기, 즉석 노래방 및 OX퀴즈, 물고기잡기 대회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부터 한 여름 밤의 콘서트, 야외 영화관, 힙합댄스공연, 도립예술단 공연, 불꽃놀이 등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 포도천연염색과 포도떡 시식, 솟대곤충나무걸이 만들기, 관화찍기, 토피어리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043)730-3371, 3784

**15일(수)** 포도 빨리먹기,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막식, 옥천포도가요제

**16일(목)** 포도알 높이쌓기, 전자현악 및 힙합댄스, G9 지자체 문화공연(영동군), 도립챔버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야외영화관

**17일(금)** 포도당도 알아맞히기, 즉석 노래방 및 OX퀴즈, 전자현악 및 힙합댄스, G9 지자체 문화공연(연기군),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 여름 밤의 콘서트, 야외영화관

**18일(토)** 포도박스 빨리접기, 물고기 잡기대회, 치어리더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G9 지자체 문화공연(논산시), 전자현악 및 힙합댄스, 청소년 페스티벌, 야외영화관

**19일(일)** 즉석 노래방 및 OX퀴즈, 물고기 잡기대회, 포도알 높이쌓기, 전자현악 및 힙합댄스, 치어리더댄스, 포도 빨리먹기, 국민화합의 밤 및 폐막식, 불꽃놀이



## >>> 금산 금강민속축제

25~26일, 금산 부리면 금강놀이마당  
물떼기 농요, 들독장사 선발대회 등 볼거리 풍성

금강 상류인 금산지역의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009년 제17회 금강민속축제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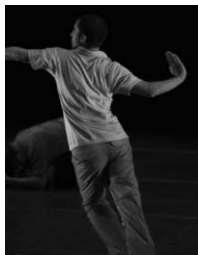
물떼기 농요(충남 무형문화재 15호) 공연, 강변음악회,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려 어깨 너머로 던지는 들독장사 선발대회와 농바우꼬시기(기우제)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지고 축제기간 행사장 주변에선 통발과 족대 등을 통한 전통 물고기잡기 놀이와 들독들기 및 열두발 상모돌리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레프팅 체험 등이 준비된다. 금산문화원 041)754-2724



# 한 여름밤 coooooo~한 예술의 향연

## 한여름 밤의 댄스 페스티벌 10주년 기념 ‘대전국제공연예술제’

8월25~29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야외무대 • 무료



대전시립무용단이 매년 여름에 선보였던 야외 상설공연 한여름 밤의 댄스 페스티벌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대전을 대표하는 상설야외공연으로 성장, 수많은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올해는 국내는 물론 해외 단체를 초청, 세계적인 국제무용페스티벌로 마련한다. 특히 매주 토요일 야외무대에서 선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앙상블홀과 야외무대에서 번갈아가며 수준 높은 무용축제를 선보인다.

첫날인 25일에는 신창호&LDP무용단과 김여진, 그리고 독일의 리처드 시에갈의 무대가 앙상블홀에서 마련되고, 26일에는 시립무용단과 이정애 무용단, 일본의 마유즈미 민속무용이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27일에는 정형수 무용단과 미국의 나이니 첸 댄스 컴퍼니, 그리고 시립무용단의 무대가 야외무대에서, 28일에는 후주의 공연예술단체인 챔버드의 순서가 앙상블홀에서 기다린다. 마지막 무대는 29일 시립무용단과 폴란드의 실레시아 댄스 씨어터의 공연으로 꾸러진다. 610-2282~5

## 보문산 춤과 음악이 있는 풍경

7월17일~8월7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보문산 야외음악당 • 무료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보문산을 명소화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시작된 보문산 춤과 음악이 있는 풍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 역시 시립예술단의 무용과 합창, 그리고 농악과 밴드공연 등 다양한 작품들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첫날인 17일에는 금관악기와 타악기의 환상적인 만남이 기대되는 유은호 빅밴드의 무대가 펼쳐지고 24일에는 시립무용단의 화려한 춤의 향연이 기다린다.

이어 31일에는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가 펼치는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이, 8월 7일에는 시립합창단의 선율이 여름밤 보문산을 장식한다. 공연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며 멀리서 오는 관람객들은 보문산 입구 쪽 양 도로변이나 공연주차장에 주차한 뒤 20여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된다. 256-3684

##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토요어울마당’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 무료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대흥동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구 중구청)에서 음악 댄스 미술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예술가들의 어울마당 공연 기회를 제공하

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7월에는 무용과 요가, 락밴드, 발리댄스, 그리고 통기타와 퓨전음악, 미술 등의 무대가 기다린다. 4일에는 대전춤사랑회의 한국무용과 한스모어댄스 컴퍼니의 현대무용, 디딤무용단과 윤민숙무용단의 전통무용이 시민무용축전 폐막식으로 마련된다. 이어 11일에는 금선요가원의 점시요가와 에반헌트의 락밴드, 김진숙트라이비발발리댄스의 발리댄스가 선보이고 18일에는 정석동예술단의 퓨전음악, 큰별작은별의 통기타 연주, 직장인밴드인 오션지의 무대가 이어진다. 25일에는 충남대락밴드인 트레콤의 무대와 장동초미술팀의 미술, ACT의 방송댄스가 펼쳐진다. 256-3684

## 우리가락 우리마당

~9월26일,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 • 예술의전당 야외극장 • 무료



시원한 야외에서 우리의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오는 9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원형극장 특설무대에서 계속된다.

민족예술단 우금치가 마련하는 야외상설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본격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에는 '청풍명월과 함께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으로 기획,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자리할 수 있는 무대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펼쳐진다. 7월 4일에는 탈춤과 아쟁산조, 창작소리극 등이, 10일에는 무용과 가야금 병창, 정가, 풍물굿판이, 11일에는 고성오광대와 봉산탈춤, 정선아리랑 등이 펼쳐진다. 17일에는 창작무와 판소리, 결성농요, 전통연희가, 18일에는 밀양 허튼춤, 서도 산소리 등이, 24일에는 마임극과 민요, 퓨전국악, 미술 등이 무대에 오른다. 폐막제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 동안 '달아 높이곰 솟아라'를 주제로 국악 한마당 축제가 선보인다.

934-9394~5, [www.urigarak.or.kr](http://www.urigarak.or.kr) [www.wukumchi.co.kr](http://www.wukumchi.co.kr)



## 70~80년대 지역 예술인 꿈의 무대 가톨릭문화회관, 그 설렘과 추억



70~80년대 지역예술인의 꿈의 무대였던 가톨릭문화회관 내부전경

카페 떼아뜨르와 뮤즈, 앙상블, 동인 극장, 까치굴 소극장, 예사랑 극장, 극단 새벽 공연장 등등.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지역 연극의 산실로 운영됐던 원도심의 연극 무대다. 그러나 지금은 남아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옛날 연극 공연장의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중구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일 것이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가톨릭 문화회관은 전문 공연장이 없던 시절,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꿈의 무대로 인식됐다. 비록 300여석의 작은 규모지만 극장이나 다방에서 어설프게 하던 음악회나 연극공연이 가톨릭문화회관으로 인해 비로소 정식 무대에 올라설 수 있었다.

1979년 시민회관이 들어선 이후 90년대 전문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예술공연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던 가톨릭 문화회관이 지난 해말 옛 명성을 찾을 일이 생겼다. 아신아트 컴퍼니에서 이곳을 장기 임대해 연극전용극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서울 대학로 히트연극들이 한달 간격으로 무대에 올려진다. 20

대 커플들의 좋은 데이트코스로 자리잡았다.

또 하나의 원도심 소극장은 지난 2007년 문을 연 중구 대흥동 성모 병원 맞은 편 드림아트홀. 90년대 초반 원도심 연극극장이 사라진 이후 14년만에 등장한 소극장이어서 반가움이 컸던 곳이다. 드림아트홀도 장기 연극 공연을 무대에 꾸준히 올리고 있어 지역 연극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타의 예술장르가 대전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신도심으로 그 무대를 옮겼으나 연극만은 그래도 아직 이렇듯 원도심에서 예술의 향기를 날리고 있다.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연극이라는 장르가 정답과 촌스럽고 덜 세련된 원도심과 그 분위기가 맞기 때문일지 모른다.

최근 대전시는 연극 전용 소극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극장 시설 개선사업과 공연활동을 위해 6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지역연극의 중심지였던 원도심 지역에, 그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새롭게 소극장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몇 달 땀흘리며 연습한 공연을 3~4일 만에 접어야 하는 임대공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곳, 단 하나의 관객이 있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곳, 관객과 하나 되어 웃고 울을 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연극 소극장이다. 원도심이 연극공연의 메카로 부활하는 날을 기다려 본다.

글 김순조



**완전식품. 충남대학교 산양유\*요구르트, 0세부터 100세까지 가치 만배**

**\*대전지역배달\***  
010-6741-0448

**산양목장: 041) 753-7448**

**\*기타지역택배\***  
010-6789-0448

※유료광고

푸드칼럼니스트 이성희 기자 추천

## 감칠맛 일품 '동원손칼국수'

B e s t f o o d



칼국수와 두부두루치기는 대전특색음식으로 선정될 만큼 명실공히 '대전의 맛'으로 꼽히는 음식이다. 서구 월평2동 무궁화아파트 앞에 있는 동

원손칼국수(대표 박인범), 평범한 칼국수에 무슨 맛 차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난 15년 간 칼국수 하나로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에 있는 미식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집이다.

### 전국 명성 이끌어낸 명품 손칼국수

동원칼국수는 멸치, 다시마, 황태 등을 넣어 우려낸 육수와 어우러진 바지락 국물에 3일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을 일일이 손으로 썬 면발을 끓여 썩갓이 곁들여진다.

얼큰하고 매콤한 국물을 원한다면 함께 따라 나오는 삭힌 고추 양념을 넣으면 된다. 텅텅하지 않고 입에 감기는 듯한 맛이 은근하게 우리나라 속풀이에 최고다.

두부두루치기는 국산 콩으로 만든 연한 두부에 국산 고추장, 고춧가루, 호박, 양파 등 각종채소를 넣고 졸여 나오는데 매콤하고 달달한 감칠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국수사리를 버무리면 또 다른 맛

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두부에 오징어를 가미한 오징어두부두루치기가 인기다.

국산 암태지 삼겹살을 조리한 수육 맛이 그만이다. 비계가 적당히 섞인 고기를 월계수 잎과 계피 등 한약재를 넣고 삶아 나오는데 돼지 특유의 냄새가 없고 고기의 맛과 향이 살아있다.

### 15년 동안 당일 재료는 당일 사용 원칙

동원칼국수는 둔산지구가 한창 개발 중일 때 월평동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연륜을 바탕으로 15년 단골이 즐비하다. 모든 식재료는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고를 남기지 않고 항상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탁자 9개가 전부인 조그만 식당으로 출발한 동원칼국수 박인범 사장은 '음식업계의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1층에 이어 2층까지 영업장을 확장해서 예전처럼 기다리거나 줄서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됐다.

서구 월평동 230번지 엄지빌딩 1층 484-9075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연중 무휴. 포장가능.

170석(1층 110석, 2층 60석 연회석 완비). 지하주차장에 12대 주차.

손칼국수 · 비빔국수 · 냉국수 4,000원, 두부두루치기 7,000원

사리 2,000원, 수육(대)1만3,000원 (중)1만원

오징어두부두루치기 1만2,000원. 만두 3,000원

글\_이성희는 푸드칼럼니스트로 인터넷신문 '디트뉴스24' 및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료광고



맛과 품질로 소문난 **떡방고구려**

**결혼이바지, 폐백, 영양떡선물세트, 떡케익, 각종행사떡**

떡방고구려는 맵쌀, 찰쌀, 서리태, 쭉, 밤, 대추, 호박, 백련초 등 떡의 주재료는 국산을 사용합니다.

둔산동 목련아파트 102동 맞은편 ▶주문전화 : 476-1600~1601 **NAVER** 검색창에 **떡방고구려** 을 치세요





|방학기획|

## 신나는 여름체험 활동

### 대전 전파관리소 '어린이 전파교실'

- 일시 : 8월 12일 오후 2시~5시
- 대상 : 초4~6
- 내용 : 전파방향탐지, 무선 자동차 경주대회 등 전파체험활동
- 참가비 : 무료
- 신청 : 홈페이지 [www.crm.go.kr](http://www.crm.go.kr)
- 문의 : 520-4143

### 허브향기 '아로마와 허브체험'

- 일시 : 연중 무휴 오전 10시
- 대상 : 가족단위 또는 단체
- 내용 : 허브에 관한 모든 체험, 족욕, 향기주머니 만들기, 향초 만들기, 향수만들기, 비누만들기, 나무공예만들기, 천연 치약 만들기, 화분만들기 등(족욕체험 1만원, 비누만들기 8,000원, 그밖의 체험 각 6,000원)
- 찾아가는 길 : 동구 하소동 위치. 시내버스 501번 가목정 마을에서 하차
- 홈페이지 <http://www.herbaroma.co.kr>, 274-5374

### 대전 YMCA

- 대상 : 초·중·고등생
- 내용 : 책과 함께 떠나는 자연여행, 태국 치앙마이 워크캠프, 시골놀이 캠프, 갯벌캠프, 수상레포츠 세계로, 어린이 경제 캠프, 생명 에너지 캠프, 레프팅의 세계로, 글로벌 농촌 체험캠프,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지중해3개국탐방 등.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YMCA 홈페이지 게재)
- 접수 : 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www.djymca.or.kr](http://www.djymca.or.kr))
- 문의 : 472-3399

### 녹색농촌체험 찬샘마을

- 대상 : 단체 15명 이상 체험가능
- 내용 : 하루, 1박2일, 2박3일 체험 협의 가능,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과 물놀이, 인근 유적지 탐방 등
- 참가비 : 체험비 1만~1만5,000원, 숙박 1만원, 식비 한끼 5,000원
- 문의 : 274-3399, 011-9802-7262

### 농촌전통 테마마을 무수천하마을

- 대상 : 단체 40명 이상
- 내용 : 농사·공예·전통체험과 인근 보문산 등산과 유적지 탐방
- 참가비 : 하루 기준 1만2,000~1만5,000원
- 문의 : 010-3898-2309



결혼정보원

## 웨딩프라미스

대전에서도 명품 결혼이 시작됩니다

- ☞ 각계 전문직(의사, 행시, 사시) 일반직 회원 다수
- ☞ 어머니의 마음으로 맞선 준비
- ☞ 횡수 상관없이 성혼까지 진행
- ☞ 국내만(초혼, 재혼) 누구나 상담 환영

>>> ☎042)521-1004

※유료광고

## 대전 YWCA



- 새문화 물들이기 (8월 4~5일, 우포늪 탐방, 초등, 3만원)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외갓집 체험 (8월 6~7일, 농촌체험, 초등, 9만원)
- 극기캠프 (8월 10~11일, 레프팅체험 등, 중학생, 3만5,000원)
- 마음을 읽는 미술놀이 캠프 (8월 12~14일, 염색체험 등, 초등, 5만원)
- 환경캠프 (8월 13~14일, 자연생태활동, 초등, 2만원)
- 문의 224-1318, 254-3037

## 선사박물관

행사명	일시	대상	내용	문의
갑천문화기행	8월 4~7일	초등학생과 부모	전문가와 함께 갑천탐방	826-2814
어린이 문화학교	8월 12~14일	어린이 문화학교	세계의 다양한 문화소개	826-2814

## 평송청소년수련원

☎ 480-1631~2

행사명	일시	대상	내용	가격
청소년 사랑나누리	8월 1일	중·고생	복지기관방문 봉사활동	5,000원
체험 농촌현장	8월 14~16일	중·고생	농촌봉사활동과 체험	6만 2,000원
봉숭아학당	8월 3~14일	초등생	자신감 향상, 진로탐색 등	종일반 27만원, 오전반 20만원, 오후반 12만원
청소년 로봇과학캠프	8월 6~7일	초4~6년	전자로봇·물로켓마들기 등	6만 5,000원
뮤직콜	8월 13~14일	중·고생	고전음악이해와 감상	2만원
역사기행(여주)	(16:00~17:00)	초4~6년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5만원
역사기행(고령)	8월 1일	초4~6년	고분군, 개실마을	5만원
텐트치고 1박2일	8월 8일	가족	캠프파이어, 게임	2만원
	7월 18~19일	초등생	텐트에서 자기, 예절익히기	5만원
평송에서 하룻밤	8월 7~8일, 14~15일, 21~22일, 27~28일	초·중생	제주도 바다여행	50만원
스킨스쿠버 자격과정	7월 22~25일	초등생	수영능력 향상	6만원
수영특강	7월 21일~8월 31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가시 각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Summer



## "SM5 NEW IMPRESSION 출시"



※유료광고

르노삼성자동차 둔산지점  
김석현 팀장 484-2300

"김팀장의 10년 약속"

\*시승문의 080-010-4520

오정중 소년체전 금3·동1 획득

## 태권도 명문 전국 명성



▶ 대전 태권 소년소녀의 저력을 전국에 알린 정준현 감독(오른쪽)과 손영복 코치

대덕구의 오정중학교(교장 이석범)가 드디어 사고(?)를 쳤다. 제3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부문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태권도 명문'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떨쳤다. 태권도 부문에서 단일학교가 금메달 3개를 딴 경우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다.

핀급에 출전한 안태영(2년), 플라이급 김성룡(2년), 라이트헤비급 손진숙(3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라이트 미들급에서 정상윤(3년)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특히 기대주였던 태권소녀 손진숙은 16강전부터 4강전까지 만난 상대를 모두 RSC승(한 선수가 더 이상 경기 지속이 어렵거나 전의를 상실했다는 판단을 주심이 내리는 경우)으로 제압해 화제를 모았다.

오정중학교 태권도부가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측의 관심에 감독, 코치의 뛰어난 전략 전술, 그리고 호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준 선수들의 의지가 3박자를 이뤘다는 평가다.

특히, 일명 '납조끼 체력훈련'이 제 값을 한 것이 아니냐며 회자되고 있다. 정준현 감독과 손영복 코치는 이석범 교장에게 강력한 체력훈련을 위한 납조끼 지원을 건의했고, 각별한 애정으로 지켜보던 이 교장의 수락에 태권도부는 납조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선수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급별로 6~9kg이나 되는 납조끼를 입고 남선공원 뒤편 조깅코스를 달리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이석범 교장은 "한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전교생의 10%에 가까운 선수들이 활동하는 운동부를 전국 1등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감독과 코치가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와 지도부를 믿어주었다"며 "2학년 학생들이 메달을 획득한 만큼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중부소방서·대전한국병원 경로위안잔치 어르신들 힘내세요!



▶ 지난 6월 8일 만수경로당에서 열린 경로잔치

대전시소방본부 중부소방서(서장 백구현)와 대전한국병원(원장 임병도)은 지난 6월 18일 만수 경로당(동구 성남동)에서 노인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경로위안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 및 병원 관계자들은 지역 내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개인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체크 및 건강상담) 등 의료 및 미용봉사를 펼치는 한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경로당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효순)와 대전한국병원이 지역봉사활동에 함께 힘을 쏟고자 지난해 4월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마련된 정기적인 행사로, 소외받기 쉬운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봉사단체와 의료계가 생활밀착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유료광고



마스터프로 최신영

골프는 행복입니다. 골프레슨의 신동!!  
**최신영골프아카데미**

[한국청소년골프협회 대전·충남지회직영]  
문산동 현대아이텔 앞 미래상호저축 9층

TEL. 486-6699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한달에 한번 머리가 호사를 누리는 날이다. 어르신들은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서둘러 아침 일찍 동구 낭월동 산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향한다.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는 이는 바로 김수희 원장(53·동구 대동 개미미용실 운영). 지난 2004년부터 산내복지관에서 이·미용 봉사를 해오고 있으니 올해로 벌써 5년을 훌쩍 넘겼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면 미용실 문도 열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0~30여명의 머리를 손질해준다.

김 원장이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30여 년 전인 20대 초반. 당시 직원으로 있었던 미용실의 원장을 따라 다니면서부터다. 이후 1990년 미용자격증을 따 김 원장만의 미용실을 개업했지만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자운대 국군대전병원과 자혜원, 평화의 마을, 한마음 등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오지마을을 돌며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김 원장은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라며 “이 일은 힘든 봉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즐기는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개미미용실 272-5676

7년여의 오랜 시간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처럼 전해주는 이가 있다. 유성구 관평동에 사는 이해신씨(40)다. 동화구연구로 활동하던 이씨는 7년여 전 우연히 알게 된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녹음봉사활동을 시작해 매일 대전시정소식 낭독 봉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점자도서관(동구 소재)에서 시정소식 녹음을 했다. 그 이후 품질 개선을 위해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다. 점자도서관에서 할 때는 혼자 음악 선곡과 녹음까지 3시간 고독하다면 고독한 씨름을 해야 했다. 요즘엔 그나마 전문 인력이 투입돼 선곡이나 편집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

“3시간여 혼자 열심히 낭독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 누군가가 위안이나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크지요.”

한번은 어떤 시각장애인이 시를 낭독해서 녹음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낭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현대시였는데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건네고 난 뒤 몇 달 후 그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요즘도 가끔 시정소식 애청자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받는다. 시정소식을 잘 듣고 있으니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 주시사하는 부탁도 한다.

이씨는 앞으로도 목소리로 지역의 시각장애인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30여년 이·미용 봉사 김수희 원장

## “6년간 어르신들의 전속 헤어디자이너”



① 매월 둘째주 목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하고 있는 김수희 원장

시각장애인들에게 목소리 선물 이해신씨

## “낭독 봉사활동 소중한 일상이지요”



② 이해신씨는 녹음봉사활동으로 지역의 시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유료광고



## “약초로 만든 병원용 화장품”

· Herb shampoo · Nano herb soap · Trouble care essence

## 自然滿® 화장품

이런분께 권합니다

비듬 · 두피트러블(가려움, 부스럼) · 여드름 · 아토피  
무좀 · 갈라지는 발뒤꿈치와 손톱주변

※사용중 불만족시는 언제라도 구입처에서 100% 환불해 드립니다.

COSMOCEUTICAL 전문기업    대전점 : 627-3375    유성점 : 825-1101    둔산점 : 221-9701  
에스앤코리아    취급점 및 전문점 문의 : 080-333-3112    NAVER 24시간 자연만 고객센터

독서모임 '백복스'의 천사 황해숙씨  
“음식은 정(情)입니다”



➊ 매달 수 백명의 먹거리를 챙기는 황해숙씨.

올해로 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서모임, 전국 독서클럽의 벤치마킹 대상인 독서모임, 언제나 누구에게나 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독서모임이 있다. 바로 백복스이다. 이런 백복스에 천사가 한 분 있다.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자. 지난 2008년 10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인 정현종씨가 독서모임인 백복스의 초청을 받고 강연을 했다. 정 시인은 시 이야기에 앞서 그날 초대받았던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정 시인은 백복스의 운영위원장인 박문호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 저녁이 너무 맛있었다고, 너무 감동을 준 저녁이었다고 했다. 정 시인을 감동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증이 일었다.

매달 둘째와 넷째 화요일마다 열리는 백복스 정기 모임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맛있는 간식도 시인을 감동시킨 손길과 무관치는 않아 보였다.

드디어 지난 6월 9일 대전시립미술관 강당에서 마련된 신영복씨(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강연회장에서 황해숙씨(48)를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이 날도 직접 담긴 식혜로 수백명의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황씨는 며칠 전부터 만들어 놓은 식혜를 주변 사람들의 냉동고에서 열렸다가 갖고 왔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 2002년부터 백복스 정기모임의 간식거리는 물론, 강연자들의 저녁준비,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백복스 사랑방 저녁준비와 천문우주뇌과학 온지당모임의 간식 준비까지 해내고 있다.

“처음 남편(박문호 박사)따라 독서클럽에 갔을 때 참석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2시간 이상씩 앉아 강연을 듣는데 차라도 준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아울러 독서클럽의 초청 강연자의 식사까지 집에서 제공해 시인 정현종씨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 유명 강연자를 감동시키고 있다.

황씨의 음식 보시는 한동안 서울까지도 이어졌다. 남편 박 박사가 서울 연구모임인 수유너머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박 박사의 강연날이면 황씨는 자동차에 음식을 싣고 서울까지 가서 음식을 나눴다. 초창기 어려운 연구모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싶어서 였다고 했다. 음식보시를 위해 300포기의 김장을 담근다는 그녀를 백복스 회원들은 천사라고 한다. 우리의 천사가 전하는 밥에 대한 생각.

“우리의 전통문화가 누구든 식사 때가 되면 밥먹고 가라는 문화잖아요. 밥 한끼 먹으면 정도 새록새록 솟고, 서먹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먹거리를 나눈 후 포근해진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잖아요.”

※유료광고

교육과 미래

www.haniedu.com

※설명회 및 무료 슬럼프테스트  
매주 토요일 실시(사전 예약 필수)

**초등학생도 참가 가능한 저렴하고 안전한 캐나다 유학**  
**2개 교육청, 원화특가로 진행 결정! (2100~2300만원)**  
 치솟는 환율로 유학을 망설이셨나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 한국학생이 적은 영어몰입환경
- 국제학생을 배려하는 다양한 서비스
- 교환율에도 부담없는 저비용

조기유학  
교환학생 대표브랜드 한겨레 교육과미래 대전지사 484-6950

이달의 친절 기사상 첫 번째 수상자

## 경익운수 이세창씨, 대전버스 송용규씨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매달 친절한 시내버스 기사를 선정, 대전시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수상자로 이세창 기사(경익운수)와 송용규 기사(대전버스)가 5월 기사로 선정돼 지난 5월 29일 표창을 받고 6개월간 친절수당 5만원을 지급받는다.



급행버스 1번을 모는 **이세창 기사(54)**는 시내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스타다. 2000년 8월부터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데 이어 1년 후에는 회사에서 잠자고 있던 마이크를 시내버스에 부착하고 인사와 안내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다.

인사를 한 지 올해로 9년째 이다보니 그동안 갖고 닦은 멘트도 다양하다. “안

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히 가세요”는 기본이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에는 다양한 환승 정보도 정류소마다 알려주고 시내버스 진행을 방해하는 불량 운전사가 있으면 승객들에게 “저러시면 안된다”는 메시지도 건넨다. 이렇게 승객들을 위해 달리니 시민들도 좋아할 수 밖에 없다. 승객 열명 중 일곱명은 이 기사의 인사에 반갑게 응대해준다.

“제가 잔나비띠로 성질이 급한 편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질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한번은 어느 할머니 승객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교수인데 앞에 차가 얼얼거리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기사님은 그저 허허 웃습니까?라고요. 마이크잡고 성질 한번 내보세요, 차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급의 시내버스와 최첨단 기기들로 시내버스 환경은 이미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하는 이세창 기사는 이제는 운전기사나 승객들의 정신문화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통골과 대전역을 오가는 102번 시내버스 **송용규 기사(55)**는 짧은 머리에 무스를 발라 젊은 오빠같은 인상을 풍겼다. 시내버스를 몰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림없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승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팔자에도 없는 무스를 바른다는 그, 올해로 13년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고정노선을 달



리기 시작하면서 매일 만나는 승객들이 반가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승객들에게 인사를 시작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자 그를 기억하는 승객들도 하나 둘 늘어 그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승객들도 이제는 많아졌다.

송기사로부터 감동을 받는 승객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다. 외지에서 길을 몰라 헤매는 분들에게는 더욱 친절한 멘트로 길 안내를 해주면 대전 기사분들은 다 그러하며 감탄을 한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도 서산에서 온 승객 한 분에게 감동을 주었다.

터미널에서 현충원까지 가는 노선을 자세하게 안내해주었더니 그 승객은 “서산에서는 뭘 물어봐도 도통 이야기를 안하네 대전기사는 엄청 친절하네유”하면서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앞에까지 와서 인사를 하더라. 이럴 때마다 대전시민으로서 큰 일을 한 것같이 뿌듯함을 느낀다는 송기사는 이번에 처음 받은 친절기사상은 더욱 더 잘하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친절함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유료광고

### 배재대학교 최고경영자(CEO)과정 제29기 모집안내

#### ●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6. 1(월) ~ 2009. 8. 28(금)
-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본 대학원 교학과

####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나. 반명함판(3x4cm) 사진 2매

#### ● 교육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8월(1년 과정)

#### ● 학사일정

##### 가. 입학식 및 개강

- 일 시 : 2009. 9. 1(화) 18:30예정
- 장 소 : 본교 국제교류관 1층 아트컨벤션 홀

##### 나. 수업시간 및 장소

- 시 간 : 매주 화요일 18:30 ~ 20:00
- 장 소 : 본교 국제교류관 4층 최고경영자과정 전용강의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국제통상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Tel. 042)520-5524 Fax. 042)520-5798





## ■ 2009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인증제' 시행 계획

대전광역시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거문화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인증' 시행을 위한 응모(지정신청)를 받고 있다.

평가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이다. 임대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중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우수관리단지 인증신청은 9월 1~18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구청(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상단지 발표는 10월중에 이루어지며 2009 우수관리단지로 최종 선발된 3개 단지에는 인증패 및 인증동판을 수여한다.

문의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600-3821~2),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

##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올해 12월 9일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고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대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매달 분할 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이 3%를 부담하고 나머지 4%는 정부가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상환으로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대출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31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 희망나눔 이웃사랑 푸드마켓

- 서구 무지개 푸드마켓 488-1370
- 동구 무지개 푸드마켓 633-1377



## 시청남문 앞 잔디광장 참신한 이름 지어주세요

오는 8월 개방을 목표로 시청 남문광장과 보라매공원을 연계해 조성 중인 잔디광장의 이름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현재 시청 남문광장은 석재타일이 모두 철거되고 잔디식재가 마무리된 상태로, 지난날 석재타일로 인해 발생했던 눈부심(햇빛반사) 등의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변 소나무와 더불어 푸름이 더해가고 있다.

1만2,350㎡ 규모의 잔디광장은 서울광장의 1.9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시청남문 앞의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봄에는 영산홍, 목련 등이 활짝 핀 봄의 숲에서, 가을에는 떡갈나무와 단풍나무가 우거진 가을의 숲에서 정취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푸른 잔디광장에서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명품공원이 탄생하게 된다.

응모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메일(pwpark@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작 4명(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 당선작 1명(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뽑으며, 다수 동일명칭이 접수되었을 때는 보낸 시간이 빠른 것을 우선 선정한다. 입상자는 7월 31일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600-2822



# 동네방네 이웃소식



## 이츠대전 대학생 기자단 모집

대전광역시 제1기 이츠대전 대학생 기자단을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대학생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 대학신문사나 방송국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매달 우수 기사를 선정해 원고료를 지급하고 활동 우수자는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지원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주소 yibido@korea.kr 또는 kjun0928@daejeon.go.kr 대전시 공보관실 600-3044

## 대전시 콜센터 3차 교육생 모집

대전광역시 콜센터는 7월 13일부터 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3차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취업도 알선한다. 223-4913 온라인 신청 [www.csjop.net](http://www.csjop.net)

## 국제인명 구조견 마루와 함께



대전북부소방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시간(09:30~10:20) 국제인명구조견 마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마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훈련시범과 각종 묘기를 선보이는 한편 직접 마루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마루와 함께 놀면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7월 프로그램은 7월 5일(일), 11일(토), 19일(일), 25일(토)에 진행된다.

북부소방서 도롱 119안전센터 609-6711

## 자전거 이동수리반 운영

대전광역시 자전거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이동수리반을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시청 동편 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며 간단한 정비는 무료로, 부품 교환 및 수선은 염가로 제공한다. 대전시 건설도로과 600-2734

## 남문광장 자전거 무료강습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 대전본부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무료강습이 매달 남문광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7월 교육은 둘째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며 간편한 옷차림만 준비하면 된다. 교육은 한달간 기초부터 장거리투어까지 진행된다. 8월에는 더위로 인해 한달간 쉴 예정이다. 문의 010-3550-7218

## 시민이 뽑은 이달의 10대 뉴스

1. 침북단지 대전으로! 대전시, 청와대·정부·국회 압박  
• "최소 투자, 최단 기간, 최대 효과" 대덕특구강조
2. 갑천 새 명품 숲 '유림공원' 6월 28일 개장  
• 유성구청 앞 갑천 삼각주 일대 5만7,400㎡ 규모
3. 대전, 실업률·소비자 물가 대도시 중 최저  
•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실업률·물가상승률·어음부도율, 체감경기 가장 좋아
4. 서울아산병원 대전에 첨단임상실험센터 공동설립  
• 대전시, KAIST와 MOU... 침북단지 유치 '청신호'
5. 용전동 고속·시외터미널 지금보다 3배 커진다  
• 이마트 참여로 현대화사업 본궤도... 승·하차장 분리
6. 대전 명품 계족산 100리 숲길 뚫렸다  
• 42.25km 코스... 마라톤 풀코스도 가능
7. 대전에 1,000리(315km) 자전거길 새로 만든다  
• 3대 하천·도심 주요 도로 추가...2011년 분담률 5%
8. 9월까지 대전 그린벨트 7.2㎢ 추가 해제  
• 산업용지·관광단지 등 개발 박차...정부와 결판
9. 갑천에 대형 호수공원 수상레저 명소 탄생  
• 둔산러버보 이전으로 담수면적 4배 확대
10. UN 세계어린이·청소년 환경회의 8월 대전 개최  
•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세계 정상회의에 안건 전달







# 우리 고장 유래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6군데를 찾아보세요. 그림\_김동근

## 서구 장안동(壯安洞)

최근 장태산 휴양림으로 유명해진 장안동은 서구의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은 금산군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오동, 남쪽은 논산군 벌곡면, 북쪽은 산직동과 접하고 있다.

장안동(壯安洞)이라는 명칭은 임진왜란 때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난을 피하여 장군봉 아래 벼를 숨겨서 3년 동안 벼를 짜며 살다가 지금의 원장안에 터를 잡고 편안히 살기 시작하였다 하여 '장씨' 성의 장과 '편안하다'의 안이 합쳐져 장안으로 이름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얼마 전까지 이 근처의 전답과 산은 모두 장씨 일가의 소유였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대둔산에 뿌리를 둔 산줄기가 장엄하고 아름답게 뻗친 편안한 곳에 마을이 생겨서 장안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과 '장안'이란 장태산의 안 동네라는 뜻으로 이두(吏讀) 형식을 따서 장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다.

### ● 2009년 소개된 우리 마을

- 1월호 / 유성구 구죽동
- 2월호 / 중구 장생동
- 3월호 / 중구 옥계동
- 4월호 / 유성구 금탄동
- 5월호 / 유성구 둔곡동
- 6월호 / 동구 세천동

다른그림찾기 정답 58쪽



## 독자투고글 보내주세요

수필, 미담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원고는 200자 원고지 3~5매 분량이며, 보내실 때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 번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시로 접수하며,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 :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대전광역시청 공보관실 <이츠대전> 담당자 앞

E-mail : ccy2@daejeon.go.kr 문의전화 : 042)600-3037~8 팩스 : 042)600-2039

### | '한 달음' 다가선 당진 |

홍경석\_중구 산성동

대전~당진고속도로가 착공 8년 만에 지난 5월 28일 개통되었다. 예전엔 대전에서 당진을 가자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해 천



일러스트\_임경선

안 IC를 나와선 아산(온양온천)을 지나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합덕을 경유해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었다. 2~3시간은 족히 걸리던 길이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1시간 남짓이면 당진에 닿는다.

지역마다 그 지방 특유의 명물이 있기 마련인데 당진의 명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일부분으로 자그마치 7,310m나 되는 '서해대교'가 압권으로 꼽힌다. 바다를 막아 농경지를 만든 석문방조제와 대호방조제와 값 싸고 싱싱한 회를 파는 삼길포와 뽕어포로 유명한 장고항도 가 볼만한 곳이다. 또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왜목마을도 연말연시 댄 문전성시를 이루는 명소다. 이 지역의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나는 밥 맛 좋기로 이름난 '해나루 쌀'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수년 전 대전~통영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불과 2시간 만에 경남 사천시의 삼천포항에 도착했는데 그날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추 반이 대전시민들이어서 더욱이 반가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은 대전 사람들이 우릴 먹여 살려 준다'며 함박웃음을 짓던 포구 상인의 즐거운 표정이 지금도 뇌리에 선다. 이제 서해 한자락 당진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으니 이래저래 대전에 산다는 것이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한달음'에 가까워진 대전과 당진의 살림살이가 상부상조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풍족해졌으면 좋겠다.

### | 보리가 익어갈 무렵 |

임채수\_서울 강동구

유년의 추억 속 6월은 1년 중 농촌이 가장 바쁜 때였다. 5일경 망종(芒種)은 가시랭이가 있는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되었고, 모내기의 적기임을 알리는 절기로, 가을 추수기와 함께 농촌이 가장 활기를 띠던 시기였다.

그러나 보리는 쌀 다음 중요한 주곡의 지위를 잃었고, 배고픔의 상징 '보릿고개'는 장·노년층의 추억담으로만 남았다. 어린 싹으로 흑독한 겨울을 난 보리는 봄볕을 받아 청보리로 싱그럽다가, 이때 쪼이면 유독 황금색으로 물들어 '맥추(麥秋)'를 연출했었다. 이제 도시인들에게 보리는 관광용, 또는 꽃꽂이용 상품으로 꽃시장에 나온 청보리가 보다 익숙해진 듯도 하다.

전북 고창 H보리밭농장을 찾은 아이들과 발길을 거닐면서 아련히 보리, 보리밥에 얽힌 추억들이 떠올랐다. 1970년대 현직교사 시절 점심시간에는, 쌀 소비절약 시책으로 아이들의 도시락을 검사했는데, 점심 도시락에 보리 등 잡곡이 30% 이상 섞였는가를 검사하여 장부에 'O'(공보리밥 수준), '△', 'X'(흰 쌀밥) 등 기록으로 남기 기까지 했는데, 보리밥도시락이라도 창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절, 시책의 명분으로 아이들을 닦달했던 기억이 씁쓸하다.

더 거슬러 올라간 나의 어린시절, 이때쯤 학교는 2~3일 '농번기 방학'으로 아이들도 농사일을 돕도록 했다. 보리를 베기 전 날, 발주인은 보리밭을 향해 서서 작대기로 지게 다리를 두드리며, 몇 차례 "내일 보리 벤다. 정말이니 서둘러라, 잉"하며 외친다. 밭에 살던 두꺼비, 종달새 등에게 밭을 떠나 새 터전을 마련하라 이르는 것이다. 그 들녘의 보리베기, 모내기 축제는 사라졌고, 적막하기까지 한 들판에서 사람과 누렁 소의 일손을 대신하는 트랙터, 이앙기(移秧機)의 굉음이 허허롭다.

보리 이삭줍기는 나와 누이동생의 몫으로, 아버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우면 상(賞)을 주겠다”는 말씀에 밭의 첫 이랑부터 2~3회 왕복하며 한나절 가랑 보리이삭을 찾는다. 저녁에 아버지는 장터 국밥집의 개장국과 살구 한 바가지를 상으로 베풀었다. 주운 이삭이래야 양(量)으로나, 환금 가치로나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생활 속 알뜰함을 체험으로 깨닫게 하셨던 어른들의 지혜가 되새겨진다.

한낮 기온을 30℃ 가까이 끌어올린 햇살뭍음이 내리쬘는 날, ‘사월 초파일 뽕꼭새 새로 울어/물든 청보리/(...) /오슬한 비취의 그리미를 드리우더니// 어느 만큼 갔느냐, 굶주리어간 아이/(...) /네 발바닥 빛갈로 보리는 익어/우리 가슴마다 그 까슬한 가시라기를 비비는 데——//뽕꼭새 소리도 고추장 다 되어/창자에 배는데——/문드러진 손톱발톱 끝까지 얼얼히 배는데——’ 서정주 시인의 ‘보릿고개’ 시구절이 코끝을 찡하게 한다.

## | 윗층의 고통을 아시나요? |

노정숙\_동구 용운동

아파트 사람들은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은 상시로 열고 산다. 특히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과 새집증후군이 염려되어 창문을 자주 열어 두는 편이다.

그런데 아파트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다.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베란대로 나와 창문을 열고 피우는 듯한데 그 연기가 아파트 위층으로 고스란히 올라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알면서도 “우리 가족만 피해를 안 입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다.

아래층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스멀스

멀 베란대를 통해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오면 아이들도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린다. 아침 저녁은 물론 새벽녘까지 시도 때도 없으니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참다못해 아래층에 내려가 흡연을 좀 삼가해 달라고 했더니 베란대에서 담배피우는 것까지 참견하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친



다. 발소리를 줄여 아래층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식의 배려는 오래전부터 아파트 문화로 정착됐다. 베란다 흡연도 이웃간 피해를 주지 않게끔 자제하고 조심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 | 국민의무에 대한 부끄러움 |

한익수\_서구 관저동

6월 6일 현충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

기를 내걸었다. 그런데 어

지된 일인지 1,000

여세대가 넘는 우리

아파트에 국기라고

는 고작 두세 개가

걸려 있을 뿐이었다. 조

금 일러서 그런가 하고 기다

려 보아도 국기를 게양하는 집은 별로 늘지 않고 주차장에서는 야외로 떠나는 듯한 차량들이 분주하다.



아파트관리소와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조기를 게양해줄 것을 권유하는 방송을 했는데도 국기를 건 집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일부러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봤다. 어떤 관공서에는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채 전에 걸었던 그대로의 모습이고 수많은 아파트 단지, 개인회사들도 마찬가지다. 국경일이 아닌 탓에 도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마저 없으니 더욱 쓸쓸하다. 저녁 때 공교롭게도 모처에서 어린 학생이 국기를 달다가 고층에서 추락사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부모가 함께 게양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충일은 호국선열들의 음덕을 새기며 하루를 쉬는 기념일이다. 언제쯤 현충일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며 누구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조기를 정성껏 다는 날이 올까. 현충일날 아파트 단지의 행한 국기 게양대를 바라보며 앞서 간 호국선열들에게 죄스러운 움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나 혼자 만일까.



## 지진 제방붕괴 등 자연재해 연구 실험시설 KAIST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이남구\_KAIST 발전재단 국장

KAIST(총장 서남표)가 지반 구조물 축소 모형을 통해 지진이나 제방 붕괴 등 자연 재해를 연구할 수 있는 대형 건설공학 실험시설인 'KOCEd 지오센트리퓨지(Geo-Centrifuge) 실험센터'를 완공했다.

총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3,328.21㎡(1,007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이 실험센터는 지오센트리퓨지(원심모형시험기) 실험실, 모델제작실, 공작실, 지반공학실험실 및 시료보관실 등이 있는 '실험동'과 제어실, 화상회의실, 전자도서관 및 연구실 등이 있는 '연구동'으로 구성되었으며,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외에도 KAIST의 미래도시연구소가 함께 들어서게 된다.

연구동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원거리의 연구자들도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및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또한, 회전반경 5.0m, 최대가속도 130g(중력가속도의 130배), 최대 상재하중 2,400kg의 '지오센트리퓨지', 실험 중 지진을 모사할 수 있는 2방향 진동대, 건설공사 과정을 원격으로 모사할 수 있는 로봇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실험 기자가 설치되었다.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은 댐, 사면과 같은 대형 지반구조물을 축소 모형으로 제작, 고속 회전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실험

제 자연현상과 유사한 형태의 거동을 모사하는 실험이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의 제방 붕괴 과정도 이 모사 실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했다.



KAIST에 최근 설치된 지오센트리퓨지(원심모형시험기)는 댐이나 제방과 같이 대형구조물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로 약48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다.

## 과학기술과 인간

김종일\_국가건축사무소장

현대의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질주하고 있다. 상상 속의 세계였던 우주가 서서히 비밀의 베일을 벗고 있고, 유전공학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이종 생물의 교합을 가능하게 하며, 불치병의 목록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문명의 질주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전국을 강타한 지난 해, 정작 사람들은 겪어 보지 못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을 거

## 무 료 법 률 상 담

대덕합동법률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유료광고

## 대덕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정 수

둔산동 법원 앞 봉화빌딩 304호

042)472-8000, 011-406-4065

부하는 데만 급급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우병에 대한 거부감만 남은 채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지나친 육류 소비와 그로 인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해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박의 충돌로 빚어진 인위적인 재해가 분명함에도 결국 수습은 거주민과 ‘국민’의 자원봉사에 의지하게 되었다. 미디어는 연일 자원봉사의 손길이 모자라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동을 쏟아냈다. ‘태안의 기적’과 ‘한국민의 저력’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무분별한 유처리제 사용, 방제 작업자의 건강 이상에 대한 의료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전면에서 드러나지 못했다. 또한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대 문명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되고 말았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욕망과 비례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 생명의 소중함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기술문명의 수용자인 우리는 이제 현대 기술문명이 만들어 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되짚어보고 과학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을 경계하는 인식을 넓혀가야 한다. 삶의 질과 인간다운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전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학기술의

질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대한 창조와 자연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 엄태우 아시아트레딩(주) 대표이사 대전대 명예 경영학박사

강석만\_대전대학교 학사서비스팀 과장



엄태우 아시아트레딩(주)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7일 대전대학교 (총장 임용철)에서 명예 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989년 회사를 설립한 엄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계속·계장 및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기술을 개발, 세계 20여 개국에 활발한 수출 무역활동을 펼쳐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대통령상과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엄 대표이사는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총동문회 '대경장학회' (회장 고규환 아세아시멘트(주) 대표이사 사장)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학 발전 및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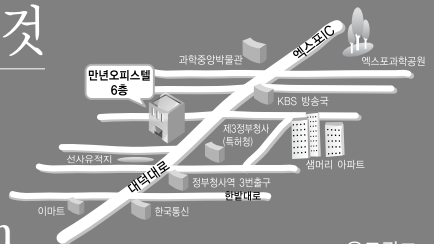
엄태우 대표이사는 학위취득 인사에서 “인재양성은 국가발전에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는 나눔의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대전대학교의 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KUMKANG**  
INTELLECTUAL PROPERTY LAW OFFICE  
**금강특허**

### 특허·상표에 관한 모든 것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 심판·소송·PCT 국제출원 및 해외출원
- 선행기술조사·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경고장 및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http://www.ipkumkang.com>



※ 유료광고

대전시 서구 월평동 241 만년오피스텔 610호 금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유병선)

TEL: 042) 485-2711 / FAX: 042) 485-2718 / E-mail: ip@ipkumkang.com

국립대전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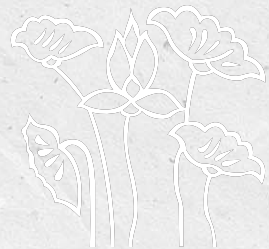
# 모운숙 호국선양시비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러이 숨지었노니

여기 제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서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조국이며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모운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중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묘역 곳곳에 20여개의 기념비가 서 있다. 이은상, 이효상, 모운숙, 서정주, 조지훈 등 우리나라 우뚝한 시인들의 이름이 보인다. 빗돌의 새김글은 대부분 제목도 출처도 밝히지 않은, 호국 경구문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을 떠나 형식면에서 시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와 서정주의 〈대전국립묘지 준공기념비〉일 것이다. 국립대전현충원 사병 제1묘역에 1990년 12월 31일 건립된 기념비를 ‘모운숙 호국선양시비’라고 명명하며 먼저 살펴본다.

모운숙(1910~1990)은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호수돈여고를 거쳐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영문과를 수료한 시인, 정치가, 외교관으로서 호는 영운(嶺雲)이다. 1933년 처녀시집 〈빛나는 지역〉 이후 〈옥비녀〉(47), 〈풍랑〉(51), 〈정경〉(59), 〈구름의 연가〉(63), 〈풍토〉(70), 〈모운숙시전집〉(74) 등 많은 시집과 수필집, 소설집 등을 발행했으며 특히 일기체 산문집 〈렌의 애가〉(37)는 50판 이상을 발행한 장기 베스트셀러였다.

해방 이후 그는 문단뿐 아니라 정계와 외교계에서 활약하였는 바 한국자유문학가협회 시분과 위원장, 문충최고위원, 유엔 총회 한국대표, 국제PEN클럽 한국본부회장,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 제8대 전국구 국회의원, 국제PEN클럽 서울대회 준비위원장, 예술원 회원, 문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예술원상(67), 국민훈장 모란장(70), 3·1문화상(79) 등 영예로운 상을 다수 받았고 사후에 금관문화훈장(91)이 추서되었다.

여기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집 〈풍랑〉(51)에 들어있는 90여행 장시로서 부제 형식으로 -나는 광주 산곡을 해매다가득 혼자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는 말이 제목 밑에 붙어 있으며, 끝에는 -1950년 8월 그름 광주산곡에서-라고 쓰여 있다. 6·25때 생산된 작품이며, 전쟁에서 죽은 젊은 장교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애국애족으로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용재\_시인, 국제계관시인연합(UPLI) 한국회장, 대전문인총연합회 회장



**시립연정국악원 28주년 특별공연**  
7월14일 오후 7시30분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 •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시립연정국악원의 개원 28주년 기념 음악회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 교류음악회로 선보인다.

유경조 선생의 지휘로 열리는 1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로, 국악관현악 '화랑'과 초연곡인 창작판소리 '논개'를 박성희씨의 판소리 협연으로 연주하며 관현악 '죽제'로 마무리한다. 2부는 임진옥 교수의 지휘로 시립연정국악원의 무대가 꾸려진다. 국악관현악 '합주곡 1번과 무용'이 송문숙 안무자의 무용과 함께 펼쳐지고 국악관현악 '달무리'가 차은경씨의 거문고 협연으로, 또 설장구 가락을 관현악 반주에 맞춰 연주하는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가 연주된다. 253-4015

## 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화려한 만남'

7월3일 오후 7시30분 •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000원

시립교향악단 창단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연주회로 객원지휘자 김덕기와 피아니스트 김영호의 만남, 그리고 리스트와 차이코프스키라는 두 거장 작곡가의 작품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1부에서는 스메타나의 '팔러간 신부 서곡' 연주에 이어 피아니스트 김영호의 협연으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가 연주되고, 2부에서는 객원지휘 김덕기의 해석으로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번 미단조 작품 64'가 연주된다. 610-2266

**로맨틱 감성연극 '그 남자 그 여자'**  
7.3~3(수 공연없음)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 3시·6시 • 가톨릭문화회관 아트홀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5,000원, 청소년 1만5,000원



인기 라디오 드라마에서 150만 밀리언 셀러로 부상한 작품이 이번에는 최고의 감성연극으로 선보인다. 지난 2007년 1월 초연을 올린 후 계속해서 앙코르 공연을 올렸고 더욱 탄탄한 구성과 새로운 캐스팅으로 이번 무대를 선보인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아련한 사랑의 추억, 혹은 따뜻한 사랑의 노래를 선사한다. 이미나 작가의 원작으로 추상욱 연출자의 연출로 선보인다. 1599-9210

## 시립청소년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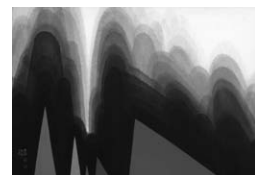
### '즐거운 도서관 음악회'

7월25일 오후 2시 • 갈마도서관 강당 • 무료



시립청소년합창단이 행복한 주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하는 즐거운 주말 콘서트다. 갈마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즐거운 도서관 음악회는 아이들을 위한 동요와 힘찬 남성합창, 뮤지컬 음악 및 가곡 등을 통해 세대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된다. 이영재 지휘자의 지휘로 뮤지컬 '맘마미아' 주제곡, 가곡 '목련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그리고 합창 '아리랑에서 아리랑까지' 등이 연주되고 '반달' 등의 동요모음도 선보인다. 610-2272~4

**김석기 21회 한국화전 '한국의 4계'**  
7월16~30일 • 대전갤러리



우승 김석기 작가의 21번째 개인전으로, 대전 전시와 함께 7월8일

부터 14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라메르에서 서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수묵과 진채의 만남전으로 한국의 4계를 새롭게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 속에 깊이 숨쉬고 있는 수묵의 농담과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강렬한 진채의 동양 5방색이 찬란한 한국의 4계로 표출된다. 국내외 450여회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 작가는 현재 동양수묵연구원장과 한남대 미술교육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전 갤러리 253-7515, 김석기 작가 011-9011-0498

## 송근호 개인전

7월16~22일 • 롯데화랑



'고향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련된 전시로, 자연에 대

한 아름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생각하며 산과 들, 나무, 하늘, 구름, 물, 언덕 등 평화로운 마을 등이 작품 속에 담겼다. 건강한 자연의 힘찬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밝은 색채로 표현, 풍성한 자연의 이미지가 잘 드러난다. 짙은 녹색, 강한 노란색이 주조색을 이뤄 인상파적인 표현을 한결같이 지킨다. 송 작가는 여덟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구상작가협회, 사생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충남지회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601-2827



# 희망의 책 대전본부 선정 '7월의 책'



## 살벌한 한국 엉뚱한 한국인

첸란 지음 • 일송북



중국 홍콩강성 하얼빈시 아성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국으로 귀화해 시사중국어학원 대표강사 등 10년여의 한국 생활을

한 중국인 첸란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중국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고사성어가 곁들여져 흥미를 돋운다. 새로운 신 여성주의를 꿈꾸는 작가가 제시하는 희망적인 한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 나무랑 마주하기

도기래 지음 • 오늘의 문학사



저자의 나무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이 책은 70여 종의 나무에 대한 이름의 유래, 나무의 속성과 쓰임새는 물론 관리요령과 주요 서식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무와 관련된 문화재나 유명한 시 그리고 에피소드도 곁들이고 있다. 나무는 정성을 쏟은 만큼만 가르쳐 준다는 작가의 말처럼 나무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와인과 음악은 사랑의 묘약이다

박정희 지음 • 책생각



와인과 음악이 만났다. 유학 시절 와인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한 저자는 한국의 와인계를 대표하는 소믈리에의 와인 및 음악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등을 담았다. 다양한 상황에 걸맞는 와인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별해 함께 추천하고 있다.

## 부정한 칼

송한범 지음 • 새미



우리 지역의 중견 시인 송한범(송인창) 대전대 철학과 교수의 첫 시집 문단 데뷔 33

년만에 펴내는 첫 시집으로 시적 완성도와 열결성, 예술의 극한을 추구하는 시인의 내공이 오랜 절차탁마를 보여주는 시행 곳곳에서 빛난다. 절기가 느껴지는 시집제목에서도 자신과 육친, 민족에 대한 시인의 독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넓은 영역을 엿볼 수 있다. 점차 가볍고 표피적인 감각의 위력이 문학, 예술 그리고 삶 전체로 밀려오는 이즈음 시의 본질을 접하면서 강기있는 선비의 음성을 들어본다.

## 신간 소개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법 제시  
〈결정적 대화〉



〈결정적 대화〉(무한)는 현재 윤치영스피치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동기부여 화술전문강사인 윤치영박사의 저서다.

사람은 혼자서 세상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런 말과 행동이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통합적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한다.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처세술과 화술을 통해 진실된 사람, 재미있는 사람, 정곡을 찌를 수 있는 화법을 지닌 사람,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사람, 항상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극단적이거나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석만 시 명예기자, 대전대학교 학사서비스팀 과장

## 암호의 해석

루돌프 키펜한 지음

이일우 옮김 • 코리아하우스



암호를 만드는 기술과 암호를 깨트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일반 대중이 읽기 쉽도록 소개하고 있다.

암호와 관련된 실화들과 다소 집중을 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며 흥미를 주고 있다. 암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암호를 만드는 사람, 암호의 내용과 암호 해석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의 부제처럼 머리를 쓰는 즐거움으로 책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다.

## 화제의 책

희수의 노작가가 펴낸 첫 시집  
〈일식사년〉



〈일식 사년〉(문도출판사)은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루씨(77·본명 강현서)가 희수를 맞아 40년을 모아둔 시를 엮은 시집이다.

1950년대 전쟁 후 가난했던 고학생은 어느덧 돈보기를 통해 신문을 보고 틀니를 소중히 닦는다. 50대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서는 '올려다만 보며 살아온 나다/오늘은 한번 원없이/나도 굶어보자'고 읊는다. 강시인은 서문을 통해 난해하여 독자로 하여금 헛갈리고 피곤하게 하는 파배기식 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파한다. 그의 시들은 진솔하고 칼칼한 강 시인의 성향과 닮아 있다.

그러나 자연과 야기 앞에서는 한없이 순수해지고 만다. 77년을 걸어온 삶의 길에서 터득한 진리는 결국 순리였다. 물이 모이면 찰 테고/차면 넘쳐 흐를 테고/선행자 복 받고/악행자 양화 받고/안 받으면 무엇이든/자손들이 받을 테고(순리)

# 7월 문화캘린더

\* 공연 및 전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연이나 전시 개제를 원하시는 분은 관련자료를 전월 15일까지  
hyj1974@daejeon.go.kr으로 보내주십시오.  
\* 문의 042)600-3038



Sun(일)	Mon(월)	Tue(화)	Wed(수)	Thu(목)	Fri(금)	Sat(토)
			<b>1</b> 와이낫 피아노 콘서트- Beethoven&Now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30 생각 生角-살아있는 각 대안공간 반지하 7.1~22(7.1~7 김승현·이 재환, 7.15~22 우수진· 구민자)	<b>2</b> 김시란 귀국 바이올린 독 주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30	<b>3</b> 시립교향악단 창단 25주년 리스트 와 차이코프스키의 화려한 만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19:30, 로맨틱 감성연극 그 남자 그 여자 가톨릭문화관 아트홀 7:30~3시 공연예술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5:00·18:00, 뮤지컬 '싱글즈' 정신화국재문화관 7:30~5, 3일 20:00, 4일 16:00· 19:30, 5일 15:00·19:00	<b>4</b> 정남일 바이올린 독주회 '브람스의 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00, 우리가락 우리마당 대전문화 예술의전당 원형아외극장 19:30, 연 극 마이마스트터임 정신화국재문 화관 백마홀 7:4~5, 4일 16:00· 19:00, 5일 15:00·18:30, 한밭도서 관 문화광장-동화구연 문화사랑방 2 층 강당 15:00, 중재신문구서전 연 정국악문화회관 전시실 7:4~10
	<b>5</b> 대전 엘렉트 앙상블 창 단 연주회 대전문화예술 의전당 앙상블홀 17:00	<b>6</b> 골방미디어전 대전공간 게이트 7.6~8.4	<b>8</b> 오영란 피아노 독주회 '사랑과 열정' 대전문화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30	<b>9</b> 제10회 붓짓 그물림전 이공갤러리 7:9~15 제9회 화두정기전 롯데화랑 7:9~15	<b>10</b> 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시리 즈6 '심연'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 19:30, 우리가락 우리마당 대전문화예술의전 당 원형아외극장 19:30, 음악 영재아카데미 콘서트 대전문 화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싱글즈' 정신화국재문화관 7:30~5, 3일 20:00, 4일 16:00· 19:30, 5일 15:00·19:00	<b>11</b> 2009 해외음용콜라주 시리즈 1-피아니스트 임효선 대전문화에 술의전당 앙상블홀 19:00, 우리가 락 우리마당 대전문화예술의전 당 원형아외극장 19:30, 라이브뮤지컬 '지하철 1호선' 우송예술회관 7:11~26, 평일 20:00, 토 16:00· 19:30, 일 16:00(월 공연없음), 한 밭도서관 문화광장-영화상영 포세 이든 문화사랑방 2층 강당 15:00
<b>12</b> 한밭대 평생교육원 공예 전 대전시청 1층 전시실 7.12~16		<b>14</b> 연극 '이름을 찾습니다' 드림아트홀 7.14~26 시립연정국악원 28주년 특별공연 대전문화예술 의전당 아트홀 19:30 아침을 여는 클래식 '행 복-바이올리니스트 피호 영'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1:00		<b>16</b> 작은음악회 '남몰래 흘리는 눈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30, 시립합창단 시민과 함께하는 하모니 대 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19:30, 김석기 21회 한국화전 '한국의 4계' 대전갤러리 7.16~30, 송근호 개인전 롯데 화랑 7.16~22, 지음전 타 임월드갤러리 7.16~22	<b>17</b> 알렌 가라기치 기타 독 주회 대전문화예술의전 당 앙상블홀 19:30 제40회 한밭전국사자공 모전 연정국악문화회관 전시실 7.17~21	<b>18</b> 아카데미 교수음악회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00, 교우리가락 우리마 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원형 아외극장 19:30, SG워너비 콘서트 정신화국재문화회관 16:00·20:00, 한밭도서관 문화광장-가족뮤지컬 '따따 따 따따따 동물음악대' 문 화사랑방 2층 강당 15:00
<b>19</b> 리소르젠페의 재미있는 오페라이야기 '마술피 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19:00	<b>20</b> 제20회 대전토우회 회원 전 중구문화원 전시실 7.20~26		<b>22</b> 대전미술 '둘'-조각 그 리고 공예 시립미술관 1~4전시실 7.22~9.2 제5회 for dream 사진 전시회 대전시청 1층 전 시실 7.22~26 하람 미술전 대전시청 2 층 전시실 7.22~26	<b>23</b> 우리가락 우리마당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원형아 외극장 7.23~26, 19:30	<b>24</b> 엄정자 한국춤무리의 찾 아가는 전통춤 원형아 외극장 7.23~26, 19:30 대전교원사진연구회 제 12회 사진전 연정국악문 화회관 전시실 7.24~28	<b>25</b> 시립청소년합창단 '즐거 운 도서관 음악회' 갈마 도서관 14:00 한밭도서관 문화광장-영 화상영 '돼지코 아기공 룡 임피의 모험' 문화사 랑방 2층 강당 15:00
	<b>27</b> 화연회전 대전시청 1층 전시실 7.27~31 명현사진 대전시청 2층 전시실 7.27~31 제20회 대전토우회 회원 전 KBS대전방송국 전시 실 7.2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인 10색 10角- '재현'에 대한 재현전 이공갤러리 6.4~7.8</li> <li>•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엑스포 과학공원 내 동화마을 소극장 6.16~7.12, 평일 10:30·11:30·13:00, 주말·휴일 13:00·14:30·16:00</li> <li>• 목원대 미술교육과 졸업전 현대갤러리 6.25~7.1</li> <li>• 대한국인 안중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6.30~7.1, 15:00·19:30</li> <li>• 제21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대전시립미술관 6.5~7.11</li> <li>• 소장품전 '산너머 산' 시립미술관 5전시실 6.11~10.4</li> <li>• 파리의 동양인, 고암 이응노 주역전 이응노미술관 6.25~9.27</li> <li>• 김수환 추기경 사진전 아주미술관 6.26~9.6</li> <li>• 충청미술 초대작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6.27~7.3</li> </ul>			



## 공연 · 전시장 전화번호

공연장	평송청소년수련원 ..... 480-1612	세이백화점 아트홀 ..... 229-2640	이공갤러리 ..... 242-2020	갤러리 유성 ..... 823-3915	갤러리 이만 ..... 220-5959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610-2222	정심화국재문화회관 ..... 821-8080	전시장	현대갤러리 ..... 254-7978	굿모닝갤러리 ..... 016-460-2233	성 갤러리 ..... 486-8152
우송예술회관 ..... 629-6464	목원대 대덕문화센터 ..... 865-7002	대전시립미술관 ..... 602-3200	오현화랑 ..... 489-8778	토탈 갤러리 ..... 867-4272	갤러리쌍리 ..... 253-8118
연정국악문화회관 ..... 253-4015	CMB엑스포아트홀 ..... 866-5180	이응노미술관 ..... 602-3270	롯데화랑 ..... 601-2827~8	대전문화전시관 ..... 932-0311	갤러리소호 ..... 482-3355
한밭도서관 ..... 580-4114	과학기술훈 ..... 869-2292	대전창작센터 ..... 255-4700	태입월드 갤러리 ..... 480-5972	갤러리 반지하 ..... 016-406-4030	모리스갤러리 ..... 867-7009
배재대21C관 ..... 520-5452	대덕구청소년수련관 ..... 626-7728	아주미술관 ..... 863-0055	대전시청 전시실 ..... 600-3268	컬트갤러리 ..... 486-0167	우연갤러리 ..... 221-7185



# 미초대전을 읽고

## 시민산악구급대 약품도난 '쌈쌀'

〈이츠 대전〉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 도시이며,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대전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필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도 선진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는 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지난 해 4월 '119시민산악구급대'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설립되었다. 대전 시내 소방서별 관할구역에 있는 산을 중심으로 구급활동과 안전산행, 환경 및 자연보호 홍보, 산악청소와 등산로정비, 구급약품함의 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중부소방서의 '식장산 119시민산악구급대'는 30명의 대원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식장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19시민산악구급대가 발족하면서 식장산에도 비상약품함이 설치되고 드디어 지난 5월 1일 소독약품, 붕대 등 13종 21세트의 의료용품이 투입되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로 전화를 하여 몇 번 구급함의 약품을 사용하려 한다고 요청하면 해당 약품함을 개방할 수 있는 자물통의 비밀번호와 사용방법을 알려준다. 약품함마다 이러한 활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약품이 투입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전체의 약품함에서 약품은 물론 자물통까지 도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6월 4일 다시 약품함을 채우고 자물통까지 새로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공중의식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6월 18일 또다시 쌈쌀이 도난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산악구급의료용품은 산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비치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용물품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와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한 번 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공중의식이 변함 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이암\_ 동구 판암동

## 자전거도로 연결구간 원할했으면

〈이츠대전〉 6월호에 대전광역시가 공용자전거 배치와 더불어 갑천변 전용자전거도로(송강동 신구교~만년동 15km)를 새로 만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평소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 4월 도마동에서 신탄진벚꽃축제를 보러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원촌교 밑에서 자전거 도로가 끊겨 있었다. 할 수 없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와동까지 가니 다시 도로가 연결되었다. 원촌교 아래서 와동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복수동~신탄진, 천동~신탄진 사이가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면 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채\_ 서구 도마동

## 보문산 관광개발 기대만발

대전 도심에 있는 보문산은 대전의 허파 노릇을 하는 소중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보물산'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운다. 70~80년대만 해도 최고의 위락공간으로 각광받던 보문산은 시대가 변하면서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는 평판을 받아왔다. 〈이츠대전〉 6월호에서 보문산에 2010년경이면 '아쿠아월드'가 개장되고 최근에 문을 연 '오월드(대전동물원+플

라워랜드)'와 더불어 최고의 관광명소로 육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갑기 그지없다. 오월드에 이어 아쿠아월드까지 갖추게 된다면 이 일대에 투어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했으면 한다. 보문산이 명소로 개발되어 대전이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도시'로 등극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홍관호\_ 동구 삼성동

## 실버는 컴맹?

35년 몸담아왔던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자 사무실에 자주 모여 시간을 보냈다. 별다른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 모여선 곧잘 고스톱을 쳤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는데 몇 달이 지나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무릎을 오래 구부리고 있다 보니 몸도 아프고, 담배 연기 때문인지 목에 가래도 끓기 시작했다.

그즈음 중구청 소식을 통해 컴퓨터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중구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내일 아침 빨리 오는 순서대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중구청으로 갔다. 벌써 열댓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17번째로 등록을 하여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두 번의 강좌를 거쳐 중급까지 마치게 되었다.

그 후, 왕초보반 강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신청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중구청 컴퓨터실버봉사대 회장도 맡게 되었다. 컴퓨터를 시작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삶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기쁨은 가장 매력적인 일이다. 젊었을 때 컴퓨터 공부를 했더라면 더욱 즐거웠을텐데 라는 아쉬움을 느낀다. 또 컴퓨터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배운 사람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문자나 메일을 보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즐거워졌다. 컴퓨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학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해야겠다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실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하시고,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희식\_ 중구 대사동



## 다른그림 정답



# 첨단의료복합단지, 바로 대전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35년간 투자로  
이미 준비된 지역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  
첨단의료복합연구가 가능한 연구환경,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R&D의 핵심지입니다.

국제화 위한 인력과 기술,  
30년 후 최첨단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대덕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 +  $\alpha$ 로  
세계5대 의료강국의 꿈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 홈플러스 하나카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홈플러스에서 최고 **7%** 할인 받으세요!



## 홈플러스 하나카드 주요서비스

- 홈플러스 최고 **7%** 할인
- 2~3개월 무이자 할부 (홈플러스, 백화점, 학원, 스포츠센터, 약국)
- 홈플러스 웨밀리카드 포인트 0.5% 적립
- 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 (엔진오일 교환 시 할인 등)
- 씨즐러 주중 20%, 주말(공휴일포함) 10% 할인
- 전국 미용실 10% 할인
- GS칼텍스 리터당 50원 할인
- 아웃백, 베니건스, TGIF 10% 할인
-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2% 할인



※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 4항에 의거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제휴사 및 당행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함으로써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hanabank.com](http://www.hanabank.com) 또는 하나카드 대표번호 1599-115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09본부160 / CC브랜드09185 / 2009. 5. 28 현재